

통권 136호 후 위화 소식

발행일 2003. 2. 12 발행인 권오헌 발행처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한총련 정치수배자들, 연세대서 합동 차례



[사진/민중의소리]

1월 30일 오전 11시 민족의 명절인 설에 가족과 함께할 수 없는 정치수배자들이 연세대 학생회관 3층 푸른샘에 모여 합동 차례를 지내고 한총련 이적규정철회와 정치수배 전면해제를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영업(97년 5기 한총련 의장 권한대 행, 수배 7년), 송용한(97년 5기 한총련 대의원, 수배 7년)씨 등 장기 정치수배자들을 비롯하여 연세대 한총련 대의원 수배학 생들이 참석했다.

• 목•차• 우리의 주장권오현 회장• 2 /이 달의 시 진관 스님•5 /출소장기수 박상은 선생님을 찾아서 하재광 편집위원•6 / 노동자양심수 송수근님의 부인 박미경님께서 올린 글•9 / 고광희 회원을 만나서 이창회 후원회간사•11 /한총련양심수 박정환님께서 보내온 편지•14 /전 한총련의장김형주님께 보내는 편지 김미성 후원회간사•15 /면회기 박상춘 광주전남지역양심수후원회사무국장•16 /산행기 송창학 후원회간사•17 /회원교육강좌보고 황성원 회원•18 /특집 "노동자손해배상청구·가압류 문제"•19 / 나의삶 나의일터 장재영 회원•22 /광고•23 /슬픈일•24 /시시만화•26 /이런일이 있었어요•27 /재정보고•35 /회비납부•36

🕸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110-542 서울시 종로구 창신2동 592-7 **전화**: 765-5282 **전송**: 745-5604

회원모임방 151-812 서울시 관악구 봉천6동 1690-141 전화·전송: 888-4470 홈페이지: www.yangsimsu.or.kr

양심수전원석방 정치수배해제, 범민련·한총련 이적규정철회 - 대통령취임 양심수대사면을 다시 촉구한다 -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회장

나 통령 취임을 앞두고 양심수사면에 대한 엇갈린 언론보도들로 양심수 가족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의 말을 빌린 어떤 언론보도는 '대통령 취임 사면이 없다'라 했고, 대통령 당선자 의지라며 민주당 이상수 사무총장은 대통령취임 양심수사면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한 다른 언론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사면과 관련된 책임 있는 정부당국자의 공식발표가 아닌 이상 이러한 언론보도만으로 사면여부를 예단 할 수 없는 터이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대통령취임을 목마르게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 바로 구속양심수들이고, 정치수배자들이며 그가족들이었다. 대통령 당선자가 인권변호사로 활동했고, 노동쟁의에서 합리적 해결에 노력했었으며 국가보안법폐지, 국정원개폐, 한총련이적규정의 모순성을말해 왔었기에 더욱 그러했다.

양심수 사면은 법을 어긴(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은전이 아니다. 잘못된 법과 제도로 잘못 집행된 피해자들에 대한 원상회복조치이다. 실정법 속의 사법판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역사와 정의를 바로잡는 대통령의 통치수단이며 고유권한이기도 하다. 대통령 사면권 행사와 관련, 일부에서 사면권 남용이란비판이 있기도 했었다. 권력형 부정 비리자나 경제파탄을 자아냈던 재벌총수들, 국정농단의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사면에서는 분명히 그러한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양심수 사면은 그 내용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 양심수는 위에서 말한 범죄자가 아니다. 살인강도나 사기 절도의 파렴치범도 아니다. 심지어 배가 고파 담을 넘었거나(이들도 넓은 의미에서는 정치범이다) 교통법규를 어긴 사람도 아니다. 사회정의를위해 양심에 따라 활동하다 잘못된 법 적용으로 구속

된 사람들이다. 자신의 행위로 불이익이 있음을 알면서도 정치적 종교적 도덕적 학문적 확신으로 활동하다가 수난을 당하고 있는 확신수이기도 하다. 이러한확신수는 국제적으로 양심수로 규정하여 구제운동을 벌이기도 한다. 이 땅에서의 양심수는 바로 민주주의발전과 민족통일을 위해서 사회진보와 민중의 생존권을 위해 활동하다 구속된 사람들이다. 위에서 말한 범죄자들과 한 도마에 올려놓고 재단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지난 12월 16일, 361개 시민사회단체가 대통령 취임 때 양심수 전원석방과 정치수배해제, 사면 · 복권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러한 요구는 대통령 취임사면의 관행적 조치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었다. 민주사회 라면 양심수는 처음부터 구속되어서는 안되었었다. 오랜 권위주의 시대를 겪어 오면서 수많은 사람이 부 당하게 구속되고 사법처형까지 당했다. 그러나 민간 정부, 민주사회를 자처하면서도 아직도 양심수 문제 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고 세계인권 선언이나 국제인권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기본 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사회라면 단 한사람 의 양심수도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는 양심수 대 사면을 주장했었다. 민주주의 발전 · 인권 개선은 말만으로 이루어 질 수는 없다. 구체적 실천이 따라야 한다. 16대 대선을 마친 오늘 이제 국민대통령 시대라는 말이 있다. 모든 국정에 평등한 국민적 참여 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부당하게 구속되어 공민 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조건에서는 국민대통령시대라 할 수 없다. 또한 인권개선을 말하면서 국가보안법, 보 안관찰법, 집시법, 노동관계법등 반 인권요소를 두고 서는 인권개선도 양심수 문제해결도 이룰 수 없다. 머 릿속에 있는 생각이나 의견을 주장하는 것만으로 잡 아 가두는 야만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될 것 이고, 특히 개인이나 소수 이익이 아니라 다수의 이익, 공동선을 위해 헌신한 사람을 공안대상으로 몰아 잡 아 가두는 낡은 냉전 공안사고도 마땅히 없어져야 할 것이다.

이제 새 대통령 취임이 3주를 앞두고 있다. 이제까지 권위주의적인 정권에서도, 이른바 문민정권 그리고 국민의 정부 출범때도 대통령 취임사면은 있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양심수 사면은 죄인에게 베푸는 은전이 아니다. 잘못 집행된 피해자에 대한 원상회복조치이다. 그리고 역사와 정의를 바로잡는 대통령의통치 행위이기도 하다. 그래서 대통령 취임 양심수 사면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양심수에 대한 선별사면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상수 민주당 사무총장은 노무현 당선자가 "정밀하 게 검토해 사면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 서 취임 때 사면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으 로 전해졌다. 언뜻 듣기에 선별 사면하겠다는 말처럼 들린다. 양심수 가운데 간경화를 앓고 있는 박경순씨, 폐결핵을 앓고 있는 이창호씨, 정신 불안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김대원씨등에 대한 한결같은 석방을 요구 해 오고 있었지만 대통령 취임 사면에서는 이들 병약 자를 비롯하여 형기, 형량, 기결, 미결을 가리지 말고 전원 석방하고 사면 · 복권 해야한다. 국민대통령시대 를 여는, 양심수 없는 사회를 만드는 조치로써 반드시 양심수 전원석방이 이루어 져야 한다. 이미 1988년 12 월 21일, 노태우 대통령 취임사면 때에는, 기결 양심 수는 조건 없는 석방과 함께 특별 사면, 특별 복권조치 를 했으며, 수사 중인 양심수 30명 전원은 검찰이 구속 을 취소하여 석방했고, 재판에 계류중인 123명(전원) 은 법원에서 구속취소 청구로 전원 석방조치했었다. 이때 장기구금 양심수를 제외한 남민전사건 등 무기 수까지 모든 국가보안법 조직사건 관련자들이 전원석방되었었다. 이제 노무현 새 대통령시대에는 인권후진국이란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하영옥, 박경순, 김경환씨를 비롯한 재야 통일인사 11명과 단병호 민주노총위원장 등 28명, 손준혁(6기), 김형주(10기), 한총련의장을 비롯한 학생 23명 등 62명 양심수 모두를조건 없이 석방하고 사면 · 복권해야 한다.

둘째, 한총련 대의원과 노동자 빈민운동가 등 정치 수배로 쫓기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수배해제 조치가 있어야 한다. 구속 양심수 못지 않게 고통받고 있는 이 들이 바로 정치수배자들이다. 한총련대의원이란 이유 만으로 해마다 500-600여명이 이적단체 구성 · 가입혐 의로 구속되거나 정치수배로 쫏기고 있다. 이렇게 쫓 기고 있는 학생들 가운데에는 김영삼정권시대 5기 한 총련의장 권한대행이었던 유영업 학생등이 이미 7년 째 수배 생활을 하고 있으며, 10기 한총련 대의원까지 200여명이 부모 형제와 학우들, 친구들과 떨어져 공안 감시자의 눈을 피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렇 게 오랫동안 쫓기고 있는 생활에서 많은 학생들이 불 치의 질환까지 앓고 있기도 하다. 부산대학교 2002년 총학생회장 윤용조 학생은 심근염으로, 2000년 경기 대학교 총학생회장 박제민 학생은 다리 골절과 시력 을 잃고 있지만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7기 한 총련 의장 유기진 학생도 저혈압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수배 노동자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오랜 수배생활과 노상농성 단식 투쟁 을 해왔던 전 보건의료노조 차수련 위원장도 신부전 증을 앓고 있다. 지난 설 때 집에도 못가고 있는 한총 련 수배학생들이 연세대에서 젯상을 차려 함께 차례 를 지내고, 몇몇 학부모를 모시고 세배를 올리는 모습 이 언론에 공개된바 있었다.

이것이 문명시대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차수련위 원장등 노동자 25명 전국 빈민연합 장봉수 위원장, 한 청의 홍순석부의장 등 6명까지 모두 250여명의 정치 수배자들에 대한 조건 없는 수배해제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양심수로써 가석방, 형집행정지, 또는 만기 출소했던 모든 사람들의 사면·복권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들 가운데는 이미 출소한지 10년 이상 된 사람으로부터 최근 집행유예로 출소했으나 자격정지를 당한사람들이 상당수 있다. 이들은 공민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외여행 등 경제 활동과 자유행동에 부당한 제한을 당하고 있다. 임방규, 김영승씨 등 비전향장기수들과 조상록, 유재선, 함주명씨 등 장기구금 양심수(조작 간첩사건관련)들, 그리고 제일동포사건, 구미유학생사건, 이른바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 관련자, 한총련 관련 학생과 노동자들, 노점상 철거민, 농민 등구속되었던 모든 양심수의 특별사면, 특별 복권이 있어야 한다.

넷째, 범민련,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 철회조치이 다. 이 문제는 물론 대통령 사면권으로 해결될 일은 아 니다. 그러나 이 두 단체의 합법적 활동보장조치는 얼 마든지 가능하다. 그 하나는 대통령의 정치력으로 국 가보안법을 폐지시켜 이적단체구성혐의 자체를 없애 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국회 사정으로 보아 당장 이 루어지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으로 범민련, 한총련 구성원에 대한 탄압(구속·기소 등)을 중단케 하는 행 정력을 행사하는 일이다. 무엇보다 대통령 특별사면 으로 한총련 관련 구속자 석방과 사면·복권하고 정 치수배해제조치를 함으로서 사실상 한총련의 이적규 정을 무효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한총련 대의원에 대 한 관행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구속수배를 못하게 해 야 한다.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 정신에 따르더라 도 범민련 한총련의 6 · 15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자주 통일 운동을 탄압할 이유가 없으며, 집회ㆍ결사의 자 유,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탄압행패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한총련은 학생들 스스로 민주적 절 차에 의해 구성한 자주적 학생 대중 조직이다. 한총련 에 대한 이적규정은 김영삼 정권이 정권 재창출을 위 해 가상의 적(지적단체)을 만들어 보수표의 반사이익 을 얻으려 했던, 억울한 희생 제물이었다. 한총련은 1993년에 결성한 뒤 조직결성의 목표인 강령ㆍ규약을 고친 일이 없음에도 굳이 5기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

정했다. 또한 6, 7, 8, 9, 10기까지 오면서 해마다 대표 가 바뀌고 사업내용이 달랐어도 관행적으로 이적규정 이 되었으며, 특히 9기 한총련은 공안당국에서 문제시 했던 연방제 통일 방안을 6 · 15 공동선언 이행으로 대 체 시켰고, 10기 한총련은 더욱 유연한 강령 규약을 사 회단체에 내놓아 공청회 등 검증을 받기도 했었다. 또 한 6, 7, 8, 9, 10기에 이르기까지 평화적이고 합법적 이며, 공개적으로 활동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 안 당국은 5기 한총련 전례에 따라 관행적으로 이적규 정을 하고 있었다.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 보장을 위한 범 사회인 대책위에서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이적규정 의 부당함을 제소했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해 놓고 있다. 이미 한총련과 차이 없는 정치 강령을 가지 고 있는 진보 정당이 합법적으로 선거 운동을 했었다. 오늘의 한총련은 어느 누구도(일부 수구 냉전 세력을 빼고는) 국가 안보나 사회안전의 저해요인으로 보는 이가 없게 활동하고 있다. 이미 국가보안법이 그 존립 명분을 잃고 있는 오늘, 사상·양심의 자유와 집회 결 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한총련에 대한 탄압은 당 장 그만 두어야 한다. 따라서 한총련의 이적규정 철회 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 절박한 사회 문제로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새 정권의 국정과제 가운데 인권부분이 빠져서는 안될 것이다. 대통령당선자 스스로 말했던 국가보안법폐지와 국정원의 개편,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는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안 검찰과보안 수사대 등 인권탄압도구를 없애야 한다. 그리하여 민주화 시대, 문명 시대 인권침해와 차별을 받게 하는 구 시대의 낡은 유물들을 말끔히 씻어 버려야 하며, 6·15 공동 선언시대에는 더 이상 양심수도, 정치수배자도 없는 진정한 국민 대통령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길 기대한다. 每

손준혁 학생을 석방하라

진관 스님

손준혁 학생은 한총련 의장인데 감옥에 가있다, 김대중 정부에서 한총련을 감옥에 보낸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여도 인권 단체의 말을 무시하는 일이 하두 번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인권을 무시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김대중 대통령 자신이 감옥에서 사형수로 있었으니 어떠한 법도 사형을 선고하는 법은 존재하지 말라고 그런데 한총련 만은 유독 가혹한 법을 행하였다,

김대중 대통령 당시의 선거운동 기간에 어떠했는가 한총련이 투표에 참여하여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일 그런 일을 알면서도 한총련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일 우리 인권 단체에서는 여러번 이런 현상을 말했지

김대중 대통령은 그럴 때마다 침묵으로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은 김영삼 정부 시절에 만든 악법 그러한 악법을 안고 지금까지 왔다는 것은 이제 인권 대통령이란 말이 무의미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인권을 존중하는 정부 노무현 정부가 탄생하였으니 말해야 한다, 한총련 학생을 감옥에 가두지 말고 석방하여 양심의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목소리로

한총련 학생들을 감옥에 가두고 정치를 한들이 나라의 정치는 암혹의 시대를 말하는 것 손준혁 한총련 의장을 석방하는 정부가 되어 한민족의 위상을 우리가 높이는 민족 공동연대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나라를 우리가 원하듯이 한총련이 감옥에 가는 일이 없는 민족 공동의 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의 시대에는 민중이 주인이 되는 참 세상을 건설하는 시대를 맞이하자

진실이 통하는 참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시다

하재광 '후원회소식' 편집위원

⟨○○○을 찾습니다⟩
⟨1급 정신지체 장애인⟩
⟨나이는 21세⟩

지하철 문 유리면에 부착된 전단지 한 장을 무심히 바라보다 문득 한 생각을 떠올렸다. 혹 우리가 잃어버 리고 그렇게 애타게 찾고 있는 진실의 단서가 저 전단 지처럼 우리와 늘 함께 하면서도 우리의 무관심 속에 그냥 방치된 것은 아닐까 하는. 하긴 지하철의 무서운 굉음조차 무시하는 우리가 아닌가.

늘 그랬듯이 이번에도 그 단서를 홀로 놔둔 채 환승역 충무로에서 몸을 내렸다. 진실의 단서는 늘 그 자리에서 누군가를 기다릴 것이다. 그러고 보면 행방불명된 이는 우리 자신이 아니던가.

박상은 선생 댁을 전에도 여러 번 방문한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양심수후원회 이창희 간사와 함께 선생님을 만나뵙기로 하였다. 미로처럼 연결된 어두운 골목길을 굽이굽이 돌아 선생 댁에 도착했다. 아직 대문에 들어서지도 않았지만 그 집의 개는 타고난 본능대로 낯선 이를 경계하며 사납게 짖어댔다.

거실에 들어서자 한약의 향기가 가득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약재들로 장식장이 채워져 있었다. 선생의 주된 일을 대략 짐작할 수 있었다. 원주에서 학교를 다니는 큰아이 준혁과 작은아이 인혁이 방학중이라 선생과 함께 우리를 맞아주었다.

사실 취재가 쉽게 성사되지는 않았다. 선생의 겸손한 성품 탓에 당신의 이야기가 소식지에 실리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거듭된 권유로 간신히 성사된 취재 방문이었음에도 소식지에 실리는 것을 거듭 원 치 않으셨다. 칭찬 받아 마땅한 삶을 애써 드러내지 않 으려는 모습 속에서 선생의 인품을 대충 짐작할 수 있 었다. 하는 수 없이 최대한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이끌어 낼 수밖에 없었다. 선생께서 손수 준 비한 다과를 들면서…

69년 봄.

휴가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는 중 부대 인근 마을에서 박상은 하사는 선임하사를 만났다. 서슬퍼런 군 사정권과 가난이 맞물리던 시대라 직업군인인 선임하사는 계급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데에 급급한 사람이었다.

"어디가서 밥이나 함께 먹고 들어가지."

요즘으로 치면 휴가 복귀 기념으로 접대 향응을 요구한 것이다. 그 당시 서민들의 삶이 대부분 그러하듯 박하사의 집안도 무척 가난했다. 시대적인 상황을 선임하사도 잘 알 터인데 그런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얼토당토아니한 말을 한 것이었다. 선임하사는 자신의 부족한 성정을 탐욕을 채움으로써 매꿔보려는 전형적인 호가호위형 사람이었다. 더군다나 깜박하고머리를 기른 채 기차를 타기 위해 청량리역으로 갔다가 헌병 검문에 걸려 적은 돈을 포함한 대부분의 소지품을 빼앗긴 터라 쫄병 하사는 무척 우두망찰했다.

"죄송합니다. 먼저 부대로 복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하사는 대충 변명을 하고 급하게 차를 잡아타고 부대로 복귀했다. 그것이 고난의 첫 신호탄인줄 모르 는 채.

부대원 중 바둑실력이 뛰어난 박하사는 부대간부들의 신망을 받고 있는 터라 마을에서 그 일이 있은 후선임하사는 박하사를 더욱 못마땅해 했다. 베트남 전쟁에 그렇게 보내고 싶어했으니 박하사를 선임하사가어느정도 탐탁지 않게 여겼는지 집작할 만 하다.

얼마 후 고난의 행군을 알리는 첫 신호타이 터졌다.

어느 날, 포대장의 순시가 있었고 탄약고에 부대원들이 걸어 놓은 빨래를 순시 중 발견한 것이었다. 그 당시 박하사는 탄약고 분대장을 맡고 있었다.

당직을 서는 날 박하사는 우연히 선임하사의 서랍에서 15일 영창명령서를 발견했다. 그렇잖아도 평소 박하사가 허방다리에 빠지기만을 기다리던 터라 선임하사는 박하사를 영창으로 보내려고 하는 것이었다. 박하사도 선임하사에 대한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지라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칼빈 소총을 들고 선임하사를 찾아 다녔다. 막상 잠을 자고 있는 선임하사를 찾고보니 선임하사의 세 아이가 박하사의 머리 속을 맴돌았고, 아이들에 대한 연민의 정은 어느 정도 박하사의 흥분된 감정을 가라앉히게 했다.

마침내 박하사의 운명을 바꿔 놓은 사건이 터졌다. 근무를 마치고 홍분을 다잡기 위해서 부대 북쪽에 있는 사창리라는 마을로 술을 마시러 갔다가 '적지도주 미수'라는 얼토당토아니한 죄목으로 구속된 것이었다. 당시는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고, 몇 해전에는 이북에서 무장한 군인들이 서울 인근 지역까지 내려온 적이 있어 극도로 남북상황이 악화된 상황이었다. 단지 술 마시러 간 곳이 부대에서 북쪽 방향에 있었다는 얼토당토아니한 이유가 박하사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 놓은 것이었다. 더 나아가 출신 지역이 북쪽과 가까운 강화도라는 것도 박하사에겐 악재로 작용했다. 이북과 관련된 사람들과 접촉했을 것이므로. 쿠데타 정권답게 멋진 작품을 만든 것이었다. 억지로 엮은 허방다리인 셈이다. 군복무를 거의 마쳐가고 있는 상황에서.

박상은 선생은 강화에서 1945년 해방 직전 아버지 박덕만 옹과 어머니 최탐례 여사의 사이에서 8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어업에 종사하셨고,

어머니는 선생이 열 일곱 살 때 돌아가셨다. 특히 어머니는 형제 없이 자라셨고 더욱이 열 세 살 때 양친을 잃으셨다고 한다. 스물 네 식구가 한 집에 살았으니 집 안 형편은 말 할 수 없이 초라했다.

가난은 선생에게 있어 운명의 회오리와도 같았다. 한번은 형님 밥을 몰래 먹다가 형수에게 들켜 그 형수 에게 맞은 적도 있다고 한다. 오죽 했으면 초등학교 시 절에 게를 잡아서 시장에 팔아 모은 돈이 무려 천 오백 원 정도나 되었을까. 당시 천 오백원은 꽤 큰 돈이었 다. 물론 훔친 돈이 아니냐고 어머니의 오해도 샀지만. 어린 시절부터 선생은 부지런했고, 또한 선한 일은 애 써 감추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다.

열 네 살에 이미 객지 생활을 시작한 선생은 타고난 심성 탓에 견디기 힘든 사회생활 속에서도 자신은 굶 으면서 지나새나 집에 돈을 부치는 효성이 지극한 아 들이었다. 군입대 전까지 선생은 아이스크림 장수에 서 거친 선원생활 까지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69년 5월에 구속되어 89년 11월에 출소할 때까지 만 20년을 박상은 선생은 차디찬 창살 안에서 보냈다. 악의 제국을 건설하려던 박정희 정권이 기가 막히게 연출한 분단 무대의 희생자인 것이다.

구속 초기 58일 동안 받은 고문은 삼십 여 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후유증으로 남아 선생의 육체를 간간이 괴롭히고 있다.

남한산성에서 시작된 고난의 행군은 안양과 대전 교 도소를 거쳐 대구교도소에서 마침내 마침표를 찍는 다.

어머니의 자궁은 생명을 창조하는 탄생의 근원지다. 선생에게 있어 그 첫 번째 근원지는 어머니의 자궁이 었고, 두 번째 장소는 교도소의 자궁이었다. 그러므로 교도소는 선생에게 있어 제2의 어머니인 셈이다. 수많 은 장기수와 양심수와의 인연을 교도소에서 처음 맺기 시작했으며, 신영복 선생과의 만남도 이곳에서 처음 이루어졌다. 선생의 세계관은 그 분들과의 만남과 정신적 연대를 통해 더욱더 확대되었다. 출소 후 덕을 행하는 데 있어 널리 이용된 선생의 특기인 침술과 한방 지식도 바로 교도소에서 처음 익히기 시작한 것이었다. 민간의학에 관심이 많았던 아버지의 영향도 컸을 것이다. 물론 처음엔 자신의 병을 스스로 고치기 위해서였지만.

선생은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싣고 구미까지 오면서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혈육에 대한 애증이었을까. 교도소 생활 내내 선생은 혈육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그리고 출소 후 형님 댁에 의탁하여 목수일로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건만, 막상 마산생활을 접고서울로 올라간다니 형수는 선생이 맡겨둔 월급에서 냉정하게 생활비를 제외한 돈만을 주었고, 그것도 모자라 출소 후 형님이 동생에 대한 애틋한 심정으로 특별히 선물한 반지 또한 빼놓고 가라는 것이었다. 세상에 대한 통렬한 비정을 다시 한번 경험한 것이다. 그것도 열육을 통해서.

1992년 말, 선생은 오늘의 단란한 가정을 꾸리는 데에 첫 초석이 되는 혼례를 치렀다. 21년이라는 나이 차를 극복하고 지금의 사모님과 말이다. 물론 사랑엔 국경이 없다지만 한국의 정서상 쉽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오직순수한 믿음만이 그것을 가능케 했으리라.

결혼 후에도 선생은 덕을 베푸는 데에 있어도 멈춤이 없었다. 타고난 천성이 어디 가라. 우용각 선생을 비롯해 비전향 장기수 출신 선생님 다섯 분을 자신의 집에서 모시기도 했고, 좋은 일을 하는 곳이라면 선뜻후원금과 육체적 도움을 주는 것을 꺼리지 않았다. 혼

례 축의금의 일부를 사회단체에 기부한 것을 보면 그 덕을 행하는 데 있어 정도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이다.

취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박상은 선생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지나간 세월에 대한 만가지 감정이 교차했을 터. 선생의 숱한 고난을 만 분의 일도 이해하지 못하는 나로서도 코끝이 찡했다.

"아름다운 통일조국 강산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그리고 서로 진실이 통하는 참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시다."

선생의 마지막 개인적 바람은 곧 우리의 믿음이자 바람이었다.

취재를 마치고 역으로 가는 도중 거리에 걸려 있는 화려한 네온사인 불빛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참으로 진실되고 선한 빛은 요란법석을 떠는 법이 없으며, 소리없이 자신을 태우는 촛불처럼 그저 소박 하고 겸손하다는 것을. 그런데도 우리는 오늘도 요란 법석한 불빛을 쫓아 거리를 헤맨다.

취재에 응해준 박상은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선생님의 가정에 항상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 정정: 지난 호 출소장기수 소식에 실린 권주환 선생님 편에서 소개된 선생님의 자녀분들에 대한 소개가 잘못되어 정정합니다. 첫째 자녀분이 아드님이고, 둘째가 따님, 셋째가 아드님이라고 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숨쉬기조차 힘이듭니다.

박미경 노동자양심수 송수근님의 부인

는 삼성SDI에서 노 사위원으로 근무 중 구조조정에 반대하다 98년 억울하게 해고되고, 삼성의 고소, 고발로 두 번이나 구속된 송수근의 아내입니다.

저는 혼자 비디오가게 를 하고, 힘겹게 생활하 면서도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바른 성격을 지닌 제 남편에게 언젠가는 진 실이 밝혀지리라 굳게 믿 고 사비 들여서 방송장비 구입하고, 열심히 투쟁하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 삼성을 상대로 개인이 맞서 투쟁 한 결과가 대법원 패소와

두 번의 구속 등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소진되고 이 렇게까지 처참히 가정의 불행으로 이어질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제 남편은 해고 이후 계속된 복직투쟁과 2000년 삼성의 고소고발(집시법위반, 명예훼손 등)로 78일 간의 옥살이를 하는 바람에 피가 모자라고 혈압이 높고 신 경쇠약 등 건강이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첫 구속 이후, 집행유예 기간이라서 법에 저촉되는 행동은 하지 않기 위해 항상 조심하며 지냈지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집회시 발언한 것을 두고 삼성은 회 사를 비방했다며 명예훼손, 집시법위반 등으로 또다 시 고소 고발하여 현재 1년 8개월이 가까운 세월을 옥 살이 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해고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 남편을 24시간 감 시, 미행해왔습니다.

정말 회사가 떳떳하게 해고를 했다면 무엇이 두 려워서 오랜 기간 하루도 빠짐없이 미행, 감시를 했 겠습니까?

끝없는 미행, 감시와 구속으로 인해 저는 엄청난스트레스를 받아서 각종 질병에 시달려야만 했고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곤란하며, 눈에 헛것까지 보이고 환청과 불면증에 시달리다 결국 우울증, 피해사고, 신경쇠약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기까

지 했습니다.

평소 친분이 있는 회사동료나 후배가 집에 찾아오면 노무관리들이 명단을 적어서 회사에 제출합니다.

다음 날이면 제 남편과 만난 사람들은 다들 관리자에게 불려가서 하루 종일 면담하는 등 시달려야 했으므로 자연스레 제 남편과 거리를 두게 되고, 만나더라도 회사 측의 감시의 눈을 피해 몰래 만남을 가져야만했습니다.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삼성의 노무관리들은 어김없이 미행을 하고, 집회를 하게 되면 발언한 내용을 녹취하여 고소고발 자료로 사용하고, 회사 앞에서 홀로 1인시위할 때에도 회사는 비디오 카메라 3대를 설치하고 회사의 럭비선수와 경비들이 일부러 멱살음 잡는

등 시비를 걸어서 혼자 투쟁하는 제 남편 신경을 건드려서 만에 하나, 불법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촬영해서 고발하려고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행동까지 마다하지 않고 한 것입니다.

삼성이 제 남편을 미행, 감 시하는 장면을 비디오로 촬영 해서 고소하면 기각당하고 삼 성이 고소고발하면 바로 걸리 는 등 지금까지 수없이 고소고 발을 당해왔습니다.

주위에서는 대부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제 아무리 저희가 떳떳하다 하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라 면서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종용합니다.

하지만, 제 남편은 가정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면 서도 오직 삼성사원들이 자기처럼 억울하게 해고당하 는 사람이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복직투쟁 을 해온 것입니다.

재작년 여름, 생계를 위해서 포도장사를 몇 번 했습니다. 회사 앞에는 두세 번 정도 간 걸로 기억합니다.

다른 곳은 장사가 안되어 회사 앞은 아는 사원들이 많이 있기에 회사 앞에서 포도 판 걸 가지고 삼성은 포 도장사로 가장해서 사원들에게 접근을 시도했다고 얘 기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로 제 남편이 잘못했다면 무릎 꿇고 말지, 무엇때문에 대기업 삼성에 맞서서 힘겨운 투쟁을 계속해왔겠습니까? 저 역시 제 남편의 투쟁을 적극 만류했을 것입니다. 정말 이 나라에서 노동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작년 재판시에 재판부에서 합의를 보라고 권유하자, 모든 국민은 누구나 주거의 자유가 있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삼성은 석방 후 인근지역을 벗어난 타 지역에서 3개월동안 방랑생활 해야된다는 내용 등으로 일방적으로미리 작성해와서 합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아이가 영양실조의 조짐을 보이고, 허약해서 자주 코피를 흘리고, 저 역시 건강이 안좋아 종합검진도 받



아야 할 실정인데, 석방 후 바로 귀가하지 못하고 회사의 강 압적인 합의 내용에 따라 떠돌 이 생활을 해야 된다는 내용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 었습니다.

삼성에서는 저희가족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해서 주위비 난이 심해지자, 비난을 모면하 려고 떠나지 않는 대신 주위 사람들과의 만남을 단절하는 내용과 제 남편을 꼼짝 못하게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해서 일방

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해왔습니다.

그 내용에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실형을 때리는 현실이 안타깝고, 이 나라는 사회적 약자가 세상을 살아가기엔 너무 힘든 나라라는 걸 이제야 뼈저리게느낍니다. 한 개인의 인생과 그 가족의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가버리고, 온갖 비인간적이고 불법적인 행동들로 해고자를 탄압한 재벌기업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현실 앞에서 정말 너무 억울하고 분통터져서 '이 세상과의 인연을 끊어버릴까' 하는 극단적인 마음까지 먹었었습니다. 세상을 향해 한치의 부끄럼없이 바르게 산다는게, 이렇게 고통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해고자가 복직투쟁한 것이 무슨 큰 잘못이라고, 삼성은 한가정의 행복을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지, 분통이 터져 살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어린 딸은 아빠가 너무 보고싶다며, "엄마, 나…아빠랑 같이 감옥소 안에 갇히면 안되나?" 하기도 하고, 밤에 잠도 안자고 아빠 사진 보면서 "엄마, 나…가슴 이 아프다, 왜 그래?" 하며 울먹이는 아이를 보며 못난 어미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아이 앞에 보이고 말았 습니다. 아빠의 빈자리로 인해 가슴아파하며 눈물짓 는 어린 딸의 얼굴에 해맑은 미소를 되돌려 주고 싶습 니다.

두서없이 적은 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고 맙습니다.

"그립습니다"

이창희 민가협양심수후원회간사

"권 오헌 선생님, 회원님들, 낙성대 회원모임 방, 인석선배님이 사주신 새 pc, 그리고 선생님들… 많이 그립네요.

후원회 그만두면 내 멋대로 맘 편하게 잘 살줄 알았는데 벌써 그리워집니다.

어떻게 나에게로 연락이 온 건지 모르겠지만 신입회 원으로부터 후원회 활동을 하고 싶다는 전화를 한 통 받고, 또 권오헌 회장님과 통화를 하고, 마치 며칠 휴 가를 얻어 후원회를 잠시 떠나있는 기분이네요..

이럼 안되는데…

참,제가 며칠 전에 면접을 보았답니다. 근데 면접관이 그동안 내가 일했던 곳들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거있죠.

전 솔직하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간사로 일하는 1 년동안 다른 어떤 곳에서도 배울 수 없는 소중한 것들 을 배웠고 아주 감사하게 생각한다. 비록 아직 많이 부 족하지만 난 그곳에서 일하며 나 자신이 훨씬 더 큰 사 람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개를 갸웃거리며 '민가협'을 빨갛 게 보더라구요. 허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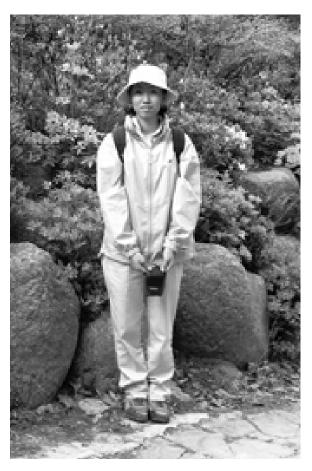
그리고 정말 바르게, 성실하게 잘 살아야겠다는 생 각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선입견 가지고 보는 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서라도 모든 면에서 남보다 더 노력해야겠구나 생각 했습니다.

앞으로 후원회원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찾아서 성실히 하겠습니다.

언제든 불러주세요."

이 글은 작년 12월에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간사활동 1년 1개월을 마친 고광희 회원께서 홈페이지에 올린 것이다. 권오헌 회장님의 말씀대로 "참, 똑똑하게 "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활동을 한 고광희 전 간사는 자신이 항상 갈망했던 '보육교사'의 꿈을 향해 약간의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찾고 있다. 새해엔 좋은 일이 있기를 기원하다.

1. 만남

2000년 가을 남대문 경찰서에서 고광희 회원을 만 났다. '8·15 평양 민족통일대축전'에 갔다가 구속된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전상봉 의장님을 면회하러 갔다 가 뒷풀이를 함께 하게 되었다. 이미 여름 국가보안법 관련 정치수배자 명동성당 농성장에서 만난 적이 있 기에 초면은 아니었다.

고광희 회원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것, 저것을 물었다. 장기수 선생님들에 대해서, 양심수 후원회에 대해서… 등등. 그러한 관심이 급기야 그를 그 해 11월에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간사로 자리하게 한 것이다.

고 회원은 1975년 전남 담양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별 탈 없이 1993년 조선대 환경학과에 입학했다. 그녀 는 1980년 광주항쟁의 기운 탓인지, 본인의 말대로 "선배들이 잘 해주어서"인지 한총련 통일선봉대 활동 등을 하며 진보적인 삶을 찾아 갔다.

그리고, 학교를 떠난 서울의 일상 생활 속에서 졸업 한 학교 선배들을 만나며 다시 진보를 생각했고, 신문 광고를 보고 자료정리 등 순수하게 자원봉사하러 성 공회대 민주화운동자료관에 찾아갔다가 일을 잘(?) 해 서 간사가 되었다. 그러다가, 한총련 정치수배자인 학 과선배를 보며 더 높은 열정을 품으며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간사가 되었다.

"젊은 날 양심적인 실천을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그 래서, 1,2년 정도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활동을 생각해 보게 되었죠."

2. 선생님들께 세배드리고 왔습니다

〈음력으로 2002년 마지막날인 1월 31일, 선생님들을 찾아뵙고 새해인사를 드리고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왔습니다. 창학선배님, 창희형, 호선배, 신입회원 이종 섭님 그리고 광희가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인사를 드린 선생님들은 낙성대 김영식 선생님, 박종린선생님, 안학섭선생님, 안희숙선생님, 김해섭선생님, 권낙기선생님입니다. 가는 곳마다 시 원한 과일과 따뜻하고 향기로운 차를 주시며 저희를 반겨주셨습니다.

안학섭 선생님댁에서는 시간가는 줄 모르고 많은 이 야기를 나누었구요.

박종린선생님께서는 파란 배춧잎을 저희들에게 세 뱃돈이라고 주시는데 거절하느라 혼났습니다. 나중에 저희를 배웅하시며 선생님께서 당신의 성의를 무시했다는 말씀을 하시길래 창희형과 제가 '아니에요. 선생님!' 목소리를 높였답니다. 요즘 몸이 많이 안좋으신 선생님께선 민족21도 나가시지 못하고 몸을 추스리는 중이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는 분이 지어주신 한약을 처방대로 달여드셨다는데 취한 느낌이 드신다며 저희를 배웅하실땐 약간 휘청거리기도 하셨습니다.

안희숙 선생님께 세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마침 출타를 하셨던 사모님께서 들어오셔서 역시 세배를 드리고 자리에서 일어서니 많이 서운해하셨습니다. 저희를 보시곤 무척 반가워하셨던 사모님께선 차도 한 잔들고 가지 않는다며 담에 또 오라고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안희숙선생님께서도 역시 요즘 몸이 좋지 않으셔서 오전에는 거의 누워계시고 오후에 잠깐씩 나가신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 만나 얘기도 나누고 싶고 해서 나가고자 하는데 몸이 좋지 않다며 많이 아쉬워하셨습니다. 몸 성한 우리들이 조금만 시간내어 가끔 찾아뵈면 좋겠다하는 생각 다시 한번 했구요.

역시 혼자 계셨던 김해섭선생님께선 저희에게 술을 자꾸 권하셨지만 또 인사드리러 가야 할 곳이 있어서 정중하게 사양하였더니 손수 맛있는 차를 끓여주셨습 니다.

마지막으로 갔던 권낙기 선생님댁은 워래 2월 2일 예정코스였는데 선생님께서 어젯밤 퇴근길 집 앞에서 넘어지시는 바람에 발목을 접지르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게 되었습니다. 오전에 양희철선생님께서 다녀가셨 고 어제 저녁보다 조금 나은 듯한 느낌이 든다고 하셨 습니다. 오래 걸릴 것 같다며 투덜대시는 선생님이셨 지만 이번 기회에 억지로라도 쉬는 시간을 가져보시 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정이, 다인이도 방학이니까 오랜만에 하루종일 집 에 같이 있으면서 예쁘고 귀여운 따님들 애교도 보시 면 좋겠지요. 마지막 코스여서인지 저희들은 선생님 과 오랜 시간 여유롭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희 들이 도착하자마자 산에 간다고 나간 다정이와 다인 이는 1시간 안에 온다고 하더니 결국 나타나지 않아 인사를 못하고 왔는데 추석때 보고 오랜만에 본 터라 성큼 자라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을 뵌오늘 하루는 참 행복하였습니다.

선생님들을 뵈러 가는 길은 애인을 만나러 가는 것 마냥 가슴이 들뜨고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그리고 선 생님들 댁에 도착하면 오랜만에 만나는 나의 할아버 지인냥 꼭 끌어안고 싶고 어리광을 부리고 싶어집니 다. 나도 모르게 목소리도 높아지고…

전 2002년 마지막날을 너무도 멋지게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저의 2003년은 happy할 것입니다.

참,도중에 권오헌선생님과 저희 일행과의 전화데이 트도 있었습니다. "광희야~" 언제나 반갑게 불러주 시는 선생님의 목소리는 항상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사랑합니다,선생님!>

위의 글도 고광희 회원이 홈페이지에 실은 것입니

다. 이렇게 그녀는 이제 회원으로 나름대로 민가협 양 심수후원회와의 만남을 지속하고 있다.

고광희 회원은 지금 "동북아물류"라는 이북상품유 통 전문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북핵문제 나 이북 현금지원 등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좋지 않지만, 일상에서 통일의 물꼬를 트는 활동으로 잘 했으면 한다.

그 곳에서는 동의보감 최고의 명약이라는 '경옥고' 등을 팔고 있다. 필자에게도 복용을 권해와서 일단 먹어보겠다고 했다. 먹어보니 정말 내 몸은 경옥고와 궁합이 딱 맞았다. 머리 아픈 것도, 가슴이 답답한 것도, 쉽게 지치는 것도 모두 사라졌다. 너무 신기했다. 물론, 약장사는 아니다. 하지만, 혹시 궁금해서 경옥고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면 고광희 회원에게 연락하기를 하세요!

고광희님,

그동안 수고했어요. 앞으로도 건투!! 🏟

살인미군 처벌! SOFA개정! 부시사과!

안녕하십니까?

우선 보내주신 정성 정말 고맙게 받겠습니다.

귀 단체에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것, 정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곳 인천 구치소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박정환이라고 합니다.

12월 1일 부평미군기지 취수탑위에 올라가서〈살인미군 처벌! SOFA개정! 부시 사과 🕽를 외치고 투쟁하다가 연행된 8기 하총련 대의워입니다.

2년 간의 수배생활 끝에 이렇게 여기에 오게되었습니다.

처음 와 본 곳이지만 지금 전국민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반미투쟁의 열기 덕에 저는 이곳에서 아주 '편한'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저를 조사하는 이들부터 이곳에 있는 분들까지 마음속으로는 함께 한다고 하며, 여러모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죄를 짓고 이곳에 온 분들 또한 미국에 분노하며 저를 걱정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야말로 조국통일의 대사변기라고 하는 시기에나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 이곳에서도 가열차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국의 자주·민주·통일을 향한 우리의 걸음은 더욱 바쁘게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부족하나마 이곳에서도 3명의 동지들과 열심히 투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보살핌으로 더욱더 힘을 받아 이땅의 자랑스런 청년으로 살 아가겠습니다.

귀 단체의 발전을 바라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모두들 몸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통일조국의 그날까지…!!

지주 · 민주 · 통일 2003. 1. 11 8기 한총련 대의원 박정환 올림

박정환님은 인하대 학생으로 8기 한총련 대의원이 되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배생활을 하다가,지난 12월 반미시위로구속되어 지금은 인천구치소에 5004번으로 수감중입니다.

더욱더 열심히 싸울 것을 다짐합니다

ப	관리는 잘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은 분들이 교도소에서는 건강했지만 출소를 하면 몸이 안 좋아진다고들 합니 러니 몸 관리는 철저해야겠습니다.
인시	나가 늦었습니다.
저는	=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김미성이라고 합니다.
엊그	1제 설 다음 날에 광주후원회 사무국장인 상춘형과 함께 최진수님를 면호
갔었싙	습니다. 광주교도소를 들어서는데 김형주님이 떠오르더군요.
그린	내서 면회를 두 명 이상 할 수 있으면 김형주님도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하지	이만 두 사람을 동시에 면회하는 것은 안된다고 하더군요.
아숙	럽지만 최진수님 면회를 마치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답니다.
다음	음에 여건이 되면 꼭 김형주님을 뵙고 싶습니다.
잘	알고 있을 걸로 믿지만, 밖에서는 많은 분들이 한총련 합법화를 위해 뛰그
있고,	정치수배 해제와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
으면 '	합니다.
김형	용주님과 같은 많은 양심수분들과 정치수배자를 위해 더욱더 열심히 싸울 ?
을 다	짐합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처음에 다졌던 신념 잃지 않길 바랍니다.
처음	음 써보는 편지글이라 어색할 따름입니다.
김형	병주님, 힘내세요.
따뜻	든한 봄날을 기다리듯이 모든 양심수 석방과 정치수배 해제되는 그 날까?
0.71	열심히 살아갑시다.

김미성님은 올해1월부터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수 습간사로 활동하고 있습 니다.

가로놓인 철창을 하루라도 빨리 없애기 위해

박상춘 광주전남양심수후원회 사무국장

보고 보고 보여 실해진 페인트 자국이 보란 듯이 얼른 눈에 들어온다. 며칠 전 진수형 가족분들과 지역 단체 회원들이 함께 교도소앞 농성투쟁을 전개했던 일들이 생생하게 하나 둘씩 스쳐 지나간다. 부끄러운 마음이지만 그 때서야 설 동안에 잊고 있었던 진수형이 불현듯 생각났다. 시골에 내려가 설을 지내고 오는 동안 진수형은 복식을 하느라 맛있는 것도 먹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에 괜히 죄를 지은 불편한 마음이다.

얼마 전 진수형 투쟁이 마무리되어 갈 때 쯤, 설 이후 서울 올라가기 전 진수형 면회를 같이 가자고 하였던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김미성 간사(광주에 있을 때는 광주전남양심수후원회 회원이었음)와 함께 교도소문을 들어섰다. 미성이가 잘 모르는 진수형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진수형(광주교도소 5056)은 2000년 8월 20일에 소위 민혁당 사건에 연루되어 국가보안법 위반협의로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1년 6개월 전 광주교도소로이감와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올 2월 17일이면 만기출소하게 되는 양심수라는 것과 1월 16일 있었던 장흥만 교도관의 폭행사건 때문에 11일 간의 단식투쟁을전개했다는 내용, 가족이 폭행당했다는 소식에 준비할 겨를도 없이 무작정 내려와 1월 22일부터 진행하였던 가족들의 교도소앞 노상농성투쟁, 연이은 광주지역 사회단체회원들과 경기도 지역 단체회원들의 교도소앞 항의시위, 그리고 이러한 투쟁들의 성과 등…

교도소 문을 들어서자 지난 폭설 때 내린 눈이 아직도 녹지 않고 쌓여 있는 모습이 이곳이 교도소라는 것을 실감케 해준다. 교도소 눈이라 녹는 속도도 더디구나. 몸도 얼고 마음도 얼어버리는 이 추운 겨울감옥에

서 명을 재촉하고 살과 뼈를 깍는 시린 겨울단식을 이 겨낸 진수형이 고마웠다.

면회실 문을 열자 단식에 헬쓱해진 야윈 얼굴이 철창 가까이 다가온다. 언제나 굴함없이 떳떳한 모습 그대로다. 앉자마자 설 때 맛있는 것도 못 먹고 어떻게참았나 물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특식으로 나왔던 떡을 너무나 먹고 싶어 참지 못하고 한 입 해서 몇 일째고생했다는 이야기다. 미음을 며칠 먹은 후 죽을 먹기시작했다고 한다. 곧 밥을 먹을 계획이란다. 단식보다는 복식이 더 중요한데... 단식을 많이 해봤고 자기 몸을 더 잘 알고 수련을 해왔기 때문에 복식도 잘 하시리라 여겨졌다.

미성이를 소개하고 교도소 안과 밖 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시간이 흘러간다. 국가인권위에서 내려와 진 수형과 폭행교도관 그리고 증인들 조사한 이야기, 폭 행교도관 고소 건과 관련하여 검찰조사가 시작되었으 니 진단서를 변호사 통해 담당검사에게 제출하라는 부탁, 단식투쟁에 함께 해주셨던 민가협어머님들을 비롯한 권오헌 선생님과 광주지역 사회단체 회원들에 대한 감사의 말씀, 출소 후 여러 단체회원들과 함께,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혼자라도 교도소 문제와 양심 수 문제, 국가보안법 철폐의 내용을 가지고 투쟁하겠 다는 결의의 말까지 함께 해 주었다.

출소하는 2월 17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보자는 인사말과 함께 짧은 만남을 정리하였다.

일상에서 수 없이 많은 만남과 헤어짐이 있지만 여러 번 만나도 헤어질 때마다 아쉽고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건 양심수들과의 만남이다. 왜일까? 양심수들과 나사이에 철창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가로놓인 철창을 하루라도 빨리 없애기 위해 더욱 더 열심히 뛰어 다녀야겠다.

"다음 번에는 꼭 15분 먼저 도착해야지"

송창학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간사

나 년째 하는 산행 시기만 후원회산행 아침이면 반쯤 감긴 눈을 비비며 "왜!좋은 남쪽 두고 꼭 2시간 걸리는 북쪽이야!라고 궁시렁 거리며 집을 나서지만, 약속장소에만 가면 그런 불만은벌써 잊어버리고 그저즐겁기만 하니 나는 붕



어와 비슷한 수준인가보다.

평창동 북악호텔 앞에 가니 짐작한대로 선생님들이 먼저 와 계셨다. 매달 산행 끝에 "다음 번에는 꼭 15 분 먼저 도착해야지." 하는 다짐을 하지만 오늘도 무 너진 것이다.

결국, 오늘도 나이 순으로 젊은 사람들이 제일 늦게 오는 산행이 되었지만 이내 숙달된 동작으로 준비해 간 무거운 짐들을 나눠지고 앞서거니, 뒷서거니 즐거 운 산행이 시작된다.

평소 바쁘다는 이유로 마음 편히 속내를 터놓지 못하였던 사람들이 함께 땀을 흘리며 도란도란 이야기 꽃을 피우기 시작하고 여기 저기서 웃음이 터져 나오니, 오늘은 평소에 비해 강도가 있는 산행이었음에도 서로가 시간가는 줄 모르고 산을 올라갔다.

비교적 포근한 날씨였지만, 능선부터는 준비해간 아이젠을 착용하고 조심조심 미끄러운 빙판 길을 걸어 대성문에 도착하였다. 눈 위에 자리를 펴고 점심을 먹는데 땀이 식으니 한기가 들기 시작하길래 서서 밥을 먹었다.

사실, 오늘은 다양한 주말 일정들 때문에 참가 인원이 다른 때에 비해 적은 편이다. 전부 12명이 함께 하

였는데 바쁜 일정을 배려한다고 연락도 드 리지 못한 한상권 교 수님이 함께 해주셨 다.

미안해하는 우리에게 특유의 목소리로 "아! 내 몸 생각해서병원간다고 생각하고나왔으니, 괜찮아." 하시며 웃어주신다. 그

리고, 오늘 처음 산행을 함께 한 이봉주 회원은 집요한 이창희 간사의 산행후기 부탁을 끝까지 뿌리치는 대 담함을 보여주어 역시 '남총련의 후예'라는 생각이 들었다. 비록 산행은 처음이었지만 토요캠페인이나 촛불집회때 함께 하며 우리에게 든든함을 보여주는 신입회원이다.

더욱 고마운 것은 지난 11월 위암수술을 받으신 출소장기수 유기진선생님이 참석하신 것. 택시운전사이 신 선생님은 5km에 이르는 산행여정을 젊은 사람들의 걸음보다 더 탄탄하게 하셨다. 참 대단한 분이시다.

이렇게 장기수 선생님도, 교수님도, 신입회원도 함께 하는 산행은 대성문을 지나 보국문을 거쳐 대동문으로 해서 진달래 능선을 타고 진행되었고, 우리 모두는 아카데미하우스 쪽으로 내려왔다. 내려오는 언덕에서 잠시 쉬면서 서로에게 인사하고, '북핵 문제' 등을 시사토론 주제로 이야기하며 올바른 세상을 향한고민을 함께 나누었다.

산을 내려와 한상권 교수님께서 권하는 '두부집'에 가서 따뜻하고 맛있는 두부를 먹으며 산행을 마쳤다. 나에게 산행은 진행될수록 묘미를 갖게 하는 좋은 시 간과 공간이다.

'민족공조'의 시대가 되기를 바라며…

황성원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신입회원, 다큐멘타리 작가

의 요일 오후 2시를 원센 넘긴 시간, "낙성대 만남의 집" 현관문을 여는 순간, 숨을 죽이며 자료비디오를 향해 눈과 귀를 집중하고 있는 분들로 후끈 달아오른 열기가 늦은 방문으로 생기는 나의 부스럭거림을 조심스럽게 했다.

자리를 잡고 찬찬히 둘러본 실내는 어떤 분

들이 이 좁은 공간에 이렇게 모여앉아 있을까싶을 정도로 남녀노소, 나이에 상관없이 담요가 깔린 마루를 가득 메우고 있었고, 사람들에게서 눈을 돌려 다시 한번 두리번거리는데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은 현관에 꽂아둔 작은 한반도기였다. 한반도기…

지난 여름 건국대에서 있었던 8.15행사장에서 멀리서 뵈었던 장기수어르신의 모습들이 떠오를 즈음, 어떤 분이 건네주시는 따끈한 둥굴레차로 한숨 돌릴 수 있었다.

과정에 있었다.

45년 일제의 패망 이후, 해방공간이라고 하는 5년 동안 한반도 남쪽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알고자하는 과정이었다. 그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도움이 될만한 논문과 책, 그리고 증언자 인터뷰를 모으고 있지만 이모저모 내적, 외적 한계가 많음을 더욱 절감하던 중이었다.

방법을 찾던 중에 장기수 어른들을 뵈야겠다 싶었고, 여쭤봐야 할 것들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이 곳에서



어떤 교수님의 역사강 좌를 알리는 홈페이지 를 보게 되었고, 정말 기회다 싶어서 맘먹고 질문을 올렸더니 직접 와서 같이 얘기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간사 님의 댓글만으로 찾아 온 길이었다.

한교수님의 친일파에 대한 아주 상세한 강의, 또 질문과 답변,

이어서 새로운 얼굴들 소개, 또 장기수어르신들께 세배드리기, 마지막으로 뒷풀이까지… 이미 회원분들에 게는 아주 익숙한 분위기인 것 같았다.

회원간에 서로서로 자극이 되고, 힘을 실어 보태주는 곳으로 역사강좌의 의미를 풀어주던 한 회원의 말씀과 질문과 답변시간에 '한미공조'의 시대에서 '민족공조'의 시대로 옮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어르신의 말씀이 내내 마음에 남는다.

내가 질문을 안고 찾아갔던 역사강좌는 질문에 대한 답변뿐 아니라, 양보할 수 없는 신념을 가지셨던 어르 신들의 눈빛을 뵈면서 이제 조금 왔을 뿐인데 쉬 지치려하는 내 모습을 가다듬게 했다. 그리고 오랜만에 입을 벌리고 큰 소리내어 웃어 재끼는 회원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새삼 충전의 자리가 될 수 있어서 참 감사했다.

어르신들의 말씀을 듣고 '만남의 집'을 나서는데 앙 상한 가지였지만 어느새 자리를 잡고서 곧 때가 오기 를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는 목련봉오리들이 눈에 들 어왔다.

노동자 분신 부른 '신종 노동탄압' 손배·가압류 최근 3년 1600억대

- 임금, 퇴직금 물론 기족 재산, 조모 선산까지 가압류, '헌법보장 노조활동 하다 인생 망칠 판' 사회문제화-

민주노총 2003, 01, 12 보도자료

- 1. 지난 9일 두산중공업 노조원 고 배달호 (50) 씨 분신자살 사건으로 '신종 노동탄압' 이라 불리는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압류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간 유행병처럼 번져온 '구속 해고로 안 되면 돈으로 노조를 깨라'는 손배 가압류가 결국 참담한 비극을 부르고 만 것입니다.
- 민주노총이 2002년 6월 말 현재 집계한 손해배상 가압류 현황에 따르면 산하 39개 사업장에서 1천2백 64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2002년 10월까지 파업 등 노조활동과 관련해 청구된 손해배상 가압류 액수는 무려 1천6백12억 8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가압류 44개 업체 1천76억 7,300만원 / 손배청구 58개 업체 535억3천500만원). 이밖에도 지난 해11월 4일에 철도청이 노조의 민주노총 행을 막기 위해 9개월 전 파업과 관련해 노조원 92명에게 78억원의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 액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압류 신청 현황〉

(노동부 자료)

- 2000년 손배 : 21개 업체 190억4천2백만원 / 가 압류 : 12개 업체 204억9천7백만원
- 2001년 손배 : 20개 업체 209억 9천4백만원 / 가 압류 : 14개 업체328억9천2백만원
- 2002년(10월31일 현재) 손배 : 17개 업체 134억9

천9백만원 / 가압류 : 18개 업체 542 억8천400 만원

- ●총1천6백12억 800만원(손배 : 58개 업체 535억3 천500만원 / 가압류 : 44개업체 1천76억7천300만원)
- 2. 고 배달호 씨 유서에서 다음과 같이 급여·재산 가압류 등 회사의 노동탄압을 비판했습니다

"두산이 해도 너무 한다. 해고자 18명, 징계자 90명 정도 재산가압류, 급여가압류, 노동조합말살 약랄한 정책으로 ··· 출근정지가 끝나고 현장에 복귀하였지만 무슨 재미로 생산에 열심히 하겠는가. 이제 이틀 후면 급여 받는 날이다. 약 6개월 이상 급여 받은 적이 없지만 이틀 후 역시 나에게 들어오는 돈은 없을 것이다. 두산은 피도 눈물도 없는 약랄한 인간들이 아닌가"

2002년 임단협 교섭 당시 교섭위원이었던 배씨 역시 임금과 퇴직금은 물론 부동산까지 가압류당한 상태였습니다. 더구나 자신은 감옥살이 후 징계 석 달을 마치고 현장에 복귀했지만, 해고까지 당한 채 임금, 퇴직금, 재산까지 가압류당한 해고된 동료들을 보며 더욱 가슴아파 했던 심정이 표현돼 있습니다.

3. 두산중공업은 지난 해 6월 24일 노조가 단체행동 과정에서 제품출하를 방해하는 등 업무를 방해해 154억의 손해를 입었다며 김창근 금속노조 위원장등 노조간부 등 42명에게 5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7월 3일에도 12명에게 15억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는 등 모두 65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6월 24일 김창근 위원장 등 42명에 대해 35억의 가압류 신청을 내 7월 2일 법원 결정을 받아42명의 급여 퇴직금 30억과 11명이 부동산 5억에 대한가압류를 집행했습니다. 또 7월 11일에도 노조원들의임금, 퇴직금과 부동산 10억을 다시 가압류했습니다.

노조는 12월 임단협 교섭을 타결하면서 회사 쪽에 손배 가압류 취하를 강력히 요청했지만 회사는 노조 압박용으로 쓰기 위해 이를 거부하다가 노조원 분신 자살이란 참극을 빚은 것입니다.

4. 가난한 노동자에게 천문학적인 손배 가압 류로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에 재갈을 물리는 일은 참으로 비인간적입니다.

평생 갚을 길 없는 어마어마한 액수를 요구하니 임금, 퇴직금, 개인 통장, 아파트 등 개인 재산을 몽땅 가압류당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노조 조합비나 노조 대표자 몇 명만이 아니라 일반 조합원까지 물불 가리지 않고 손배 가압류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회사 입사할 때 보증인으로 적어 낸 친인척 재산까지 가압류 당하고 있고, 심지어 조모 선산까지 가압류 당하는 현실입니다. 회사가 흑자를 냈는데도 적자에 대해 배상하라며 수백 억 손배 가압류 청구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임단협 시기 노사갈등은 임금이나 노동조건을 얼마나 개선할 것이냐가 아니라 임단협 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사용주들의 손배 가압류 청구 를 어떻게 할 것이냐로 변질돼 더욱 더 장기화되고 있 습니다.

- 장은증권의 경우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사합의로 명예퇴직 위로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노조 위원장에 게 모두 13억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물렸으며, 한 발 더 나아가 노조 위원장의 신원보증인인 부친과 숙부, 조모의 집과 선산 등 3억4천만 원을 가압류해 가족과 친지까지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 64명의 조합원과 보증인에게까지 12억9천5백 만 원의 가압류를 내린 동광주병원은 노조활동에서 빠지 면 가압류를 풀어주겠다고 회유, 일부는 직장을 옮겼 지만 가압류를 풀어주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못했습 니다.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난에 찬 투쟁으로 잘 알려 진 건설운송노조 레미콘 기사 22명에게 7억7천600만 원의 가압류가 떨어졌고, 한국시그네틱스 노조원 91

명도 임금과 주택 등 7억5천만 원의 가압류를 맞았고 울산 효성노조원 237명에게는 무려 366억 3천만 원의 가압류 손배소송이 걸렸습니다.

- •발전노조원 3천여 명에게 211억의 가압류가 떨어져 파업이 끝난 뒤에도 매달 월급의 50%를 떼였으며, 어떤 노조 간부는 통장에서 매달 임금이 빠져나가는 것도 모자라 마이너스 31억이 선명하게 천형처럼 찍혀 있습니다. 회사가 제시하는 서약서에 도장 찍는 사람에 한해서만 가압류를 풀어주는 방법으로 노조를 와해시키는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더구나 파업기간 동안 발전회사는 적자가 아니라 오히려 흑자를 낸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특히 가압류는 별 문제가 없으면 법원에서 신속하게 받아들이는데 이 때부터 노조원들이나 가족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어 심각한 압박을 받게 됩니다. 잘 못된 가압류라면 정식재판에서 풀 수 있는데 정식재판은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야만 시작됩니다. 이 점을 악용해 회사는 손해배상 소송을 가능한 늦게 내면서 가압류 사건을 질질 끌고, 설사 정식재판에서 노조가 승소해도 회사에 별다른 제재 방법이 없으니 당하는 사람만 억울한 실정입니다. 어쨌든 가압류나 손배소송에 걸리면 월급은 물론이고 가족의 재산권이나 재산을 뺏겨야 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겪는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고, 이 때문에 상당수가 노조활동을 포기하거나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 5. 사용주들은 "정부가 불법파업에 대해 법원 원칙대로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손배, 가압류 등 자구 책이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법집행은 아직도 사용자 편입니다.
-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 들어 파업 사업장에 경찰병력을 투입한 것은 모두 28건으로(98년 10건, 99년 1건, 00년 6건, 01년 4건, 02년 2건) 이전 정권 보다 크게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아마도 사용주들은 과거처럼 노동자들 파업을 경찰 병력이 대신 진압해주던 호시절이 지나자 '자구책' 으 로 사설 용역깡패를 동원하는 한편, 천문학적 액수의 손배 가압류 청구라는 '돈질'로 파업을 깨려 하나 봅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에서 판단하기에는 경찰병력을 투입해 파업을 진압하는 일이 시대흐름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성장한 노동운동세력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줄어들고 있을 뿐 정부의 법집행은 사용주들을 일방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노동부의 국정감사보고 자료에 따르면 98년 이후 4년 9개월 동안 접수된 사용주들이 부당노동행위는 무려 3천334건에 이릅니다. 그러나 기소율은 3분의 1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특히 부당노동행위로 구속된 사용주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부당노동행위접수 · 기소 현황〉

노동부 국정감사 보고자료

● 98년: 접수 335건(기소율 37.3%) ● 99년: 접수 331건(기소율 35.3%) ● 2000년: 접수 705건(기소율 39.3%) ● 2001년: 접수 1,142건(34.5%) ● 2002년 9월31일 현재: 접수 821건(기소율 28.5%)

●민주노총 집계에 따르면 98년 이후 5년 동안 노동 쟁의 등과 관련해 구속된 노동자는 무려 892명으로 이 틀에 한 명꼴로 구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대중 정부 5년 구속 노동자 현황〉

민주노총자료

• 98년 : 219명 • 99년 : 129명 • 2000년 : 97명 • 01년 : 241명 • 02년 : 206명 ▶총 892명

6. 헌법에 노동3권이 보장돼 있는데 노동3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감당하기 어려운 민형사 책임을 지게 되는 모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행 노동관계법으로만 보면 자신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중대한 문제라도 회사 경영에 관련된 것이면 정당한 목적의 쟁의로 인정받지 못하고, 절차에서도 필수공익사업장은 사실상 합법쟁의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 경우엔불법행위가 돼 형법 314조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민형

사상 고소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국제노동기구에서 여러차례 한국의 노동관계법이나 형법을 고쳐서 헌법정신에 맞게 노동3 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민변이나 법조계에 서도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없는 단순한 파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고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형법 314조의 업무방해에 대한 법적 정의가 실제적으로 파업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포괄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 조항을 대법원이 제공하는 협의의 해석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게 개정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며 이 사안에 대한 공식 제안을 수립하기 위한 노사정위원회의 논의를 권고한다. (2001년 3월)
- 민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와 4조를 개정해야 한다.

(현행) 제3조: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개정방향) 제3조 : ①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없다. ② 쟁의행위가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쟁의행위로 인한 재산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7. 노동관계법과 형법도 헌법정신에 맞춰 고 쳐야 하고 정부의 사용자들만 감싸는 법집행도 바로잡 아야 합니다. 또한 노조를 경영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노사대등의 원칙을 지키려는 사용주들의 자세가 필요 합니다. 그러나 우선 다급한 것은 외환위기 극복 과정 이라고 하는 김대중 정부 기간 동안 일어난 1천 600억 이 넘는 사용주들의 손배, 가압류를 사용주들은 즉각 취하해야 하고, 새정부도 이 문제를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해결해야 합니다. 每

엉덩이 무거운 8년차 후원회원

장재 영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홈페이지 관리위원

"하하하! 재영이 오빠세요?

이번주 일요일 역사강좌 있는거 아시죠?

꼭 나오세요!"

수정이의 전화작업에 "응!갈께!" 하고는 부도수표 남발한 것도 수 차례.

이제 전화도 가물가물 해졌다.

작년 한해 동안 고작 두 번 참석했으니 원…

몇 개월 전 잘 알지도 못하는 인쇄업에 '투신(?)' 해 생고생하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잘 버티었는데 이제는 버틸 건수도 없으면서 집회도 잘 안나간다.

엉덩이가 무거운가?

사람들 얼굴 보기도 부끄러운데 만나면 왜 그렇게 편하게 잘 해주는지 더 미안스럽기만 하고…

하기야 그런 성품들이 모였으니까 후원회가 늘 따뜻한 것이겠지.

후워회사람들과의 만남이 내 삶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낯설어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이 대목에서 웃는 사람도 있겠지만처음 만났을 때를 상기해 보시라) 새로운 만남을 무척 주저하고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게 만나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고.

가끔 선배들과 후배들의 생활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지만, 배우면 뭐하나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다쓰잘데 없지.

주위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손 한번 내밀고 싶어도 내 손이 더찬데…

물론, 딴에는 "그래도 경력 8년의 후원회원이다."라고 방방곡곡 떠들고 다니지만 홈피팀 하나 이끌고 가는것도 힘들어서 낑낑대고 있으니 어쩌함고.

그래도 웃으면서 때로는 편안한 조언으로 이끌어 주는 선배들이 있으니까 버티나보다. 덜떨어진 성격에 주체 못 할 변덕스러움(물론 잘 감추고 살지만)으로 내가 맡은 일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지 않지만 않지만 그래도 '대안이 없다'는 협박(?)으로 잡아놓으니 (사실 대안이야 왜 없겠수?) 어깨가 무거워진다.

마지막으로, 글이라는 게 한번 써놓으면 두고두고 남는 게 되어놔서 결심사항을 두 가지 적어놓아야겠다.

"내가 맡은 일 성심껏 잘하겠습니다. 오프라인에서의 만남을 잘하겠다고 장담은 못하겠지만 작년보다는 더 열심히 참가하겠습니다."

어휴!정말 큰 결심했다. 🏟

장재영 님은 현재 동대문에 위치한 문구골목에서명함 제작 등을 주로하는 기획사를하면서 민가협양심수후원회홈페이지 관리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알립니다

1월 산행

봄이 오고 있습니다. 통일의 봄을 고대하며 경원선 휴전선 최북단역인 신탄리의 고대산으로 오르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언 제:3월 23일 일요일 오전 9시 장 소:경기도 신탄리 고대산

모이는 곳: 청량리역 경워선 대합실 (시간 엄수)

갖출 것 : 회비 5000원, 도시락 등

차 편:1호선 청량리역

회원교육강좌

한상권 교수님의 '역사교실' 이 격동의 현대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역사공부의 기회가 여러 회원들에게 되었으면 합니다.

일 시:3월 9일 일요일 오후 2시

장 소: 낙성대 만남의 집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 ⑧번출구)

국가보안법 철폐 거리캠페인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원들은 반인권·반통일·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에 의한 부당하고 전근대적인 공안탄압 에 항의하고자 국가보안법폐지 거리캠페인에 매주 결합 하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 시:매주 토오후 4시~5시(1시간)

장 소:탑골공원

감사드립니다

- 경북 접촌에 사시는 박문성님께서 후원금 1,200,00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소 중히쓰겠습니다.
- 황금수선생님께서 1년 동안 모으신 동전 340,000 원 등 후원금 440,000원을 내주셨습니다. 고맙 습니다.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 '김정일의 통일전략' 출간으로 국가보안법에 의해 옥고를 치루시고 지금 뉴욕에서 생활하시는 송학삼 선생님께서 1000달러를 후원금으로 보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중히 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후원회 가족분들께서도 *그*간 인녕하신지 8?

해놓은 것 없이 횡망하게 한 해를 보내다 보니 이제사 인사를 올리는 불찰을 용서바 립니다. 작년 한 해는 여러모로 감동이 많 있던 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옥고를 치루고 계신 분들께 조그만 동지애의 표시로 미화 일천 불을 송금했습니다. 죄송한 부탁입니다마 는, 그 분들게 영치금으로 나누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특히, 2003년 금년은 통일의 결정적인 국 면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바로옵기는 더욱 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시길 새해 인사와 함 께 기원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미국 뉴욕에서 송학삼 배상

황영태 선생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 삼가 명복을 빕니다 -



→ 구보다 강직하고 성실하며 정직하게 90 평생을 사셨던 애국통일인사가 세상 ● 떠나셨습니다. 일제시대에는 항일투쟁에, 해방공간에서는 자주독립정부 건설시업에 헌신하시면서 숱한 고난을 겪으셨고, 전쟁시기 남북으로 다니시며 자 주・통일을 위해 애쓰시다가 옥고를 치루시기도 했으며 뒤늦게 비전향장기수석방 과 후원사업에 헌신하시기도 했습니다. 민가협 목요집회에 빠짐없이 나오셨고, 양 심수후원회 행사때마다, 그리고 양심수를 위해 큰 성원을 다 하셨기에 감사패를 받 기도 하셨습니다. 불행히도 두 번에 걸쳐 뇌졸중을 겪으면서 그렇게도 통일조국을 염원하셨지만 끝내 보시지 못하고 치열하게 90 평생을 사신 빛나는 생을 마치셨습 니다. 삼가 선생님 영전에 양심수후원회 회원 모두의 뜻으로 명복을 빕니다.

고 황영태 선생님 살아오신 길

1913.7.12	경기도 하점면 이강리에서 아버님 황종박님과 어머님 윤	1953	개성 연백 거쳐 인천에 도착, 아는 사람의 신고로 부산으
	언년님 사이에서 2남3녀 중 장남으로태어나심		로 피신. 이후 부산에서 과일 소매상, 삼일청과조합을 꾸
1918~1920	한학자인 중조부님으로부터 한문을 배우심(천자문, 계명		리면서 지하운동.
	편, 동문선습 등)	1956.10.20	한 동료의 배신으로 22명이 한꺼번에 체포됨. 국가보안
1920	하점보통학교 입학		법 위반혐의로 5년 실형.
1921	하점보통학교 자퇴- 다시 한학공부, 통권 13권까지	1958, 5,10	병보석으로 출소
1923	하점보통학교 3학년에 편입하심	1960	고향에서 다시 체포되어 2년 실형.
1926	하점보통학교 졸업하심- 다시 한학 통감, 논어, 맹자 등	1965. 7.11	5년 옥고 치루고 출소하심.
1928	경춘선 철도공사장에서 노동일 하심- 1년만에 집에 돌아	1975.	미곡상을 하며 전국양곡조합 만드심, 늘 감시받으면서
	오심, 이때 강화직조(방적사업)을 하시는 아버님을 도와		뜻있는 사람 규합에노력.
	가사에 전념	1989	비전향장기수로 감옥에 수감돼 있던 윤용기(2000. 9. 2
1931	같은 마을 최옥순님과의 결혼.		송환, 이미 돌아가심, 황선생님과 내,외종사촌)선생님과
1933	중국에 가려고 서울·해주까지 갔으나식중독으로 집으로		함께 옥고를 치르셨던 남민전 사건의 김병권 선생님이
	돌아오심, 이후 고향에서 소방서, 방범대 활동을 하는 동		출소하여 황영태 선생님을찾아뵙게 되어 이후 재야통일
	안 일본인과 다툼이 잦고 배일시상 갖게 됨.		운동에 헌신하시게 됨, 양심수후원회가 발족하자 회원으
1945~46	해방을 맞아 서울에 올라가 김구선생님을 찾아 뵙고, 민		로 가입, 큰 성원을 해주심.
	쪽운동을 하시게 됨.	1995	뇌졸중으로 몸져 누우심, 그러나 강한 투병의지로 걸어
1947	자주정부를 세우기위한지하운동, 선원지서 습격사건 주		다니실 수 있게 됨.
	범으로 몰려 도피생활.	1996. 4.	민가협 양심수후원회로부터 모범회원으로 감사패 받으
1948. 7	개성을 거쳐 평양에 강동정치학원에서 교육 받으심, 다	1000, 1,	A.
10.10.1	시 남쪽으로 내려와 경북지역에서 유격활동을하심.	2003 1 25	니. 뇌졸중 증세재발로 통일조국을 보시지 못한 채 91세로.
1950	북으로 후퇴, 전선에서 허담(뒤에 이북 외상 지냄)선생을	2000, 1,20,	끝내 세상을 떠나심.
1000	만남.		
	그님.		

평안북도 구성 당학교에서 교육

1951.2

황영태 선생님 저 세상으로 가시는 날

온갖 불의를 족쳐 부시고 이 산에서 저산으로 비호처럼 넘나들던 태백산 너는 영태 나는 수룡

너는 태백산 용사 나는 지하당 공작원 너는 빨갱이 나는 간첩 너의 집은 높은 태백산 나의 집은 낮은 지하

민주의 나라를 세우리라 뿌리와 같이 깊게 내 바위와 같이 튼튼케 내 정열과 같이 빛나게 세우리라 자유의 나라 인민의 나라 외치리라 너도 외치고 나도 외치고 가는 길은 같았다

너도 일찍이 아내와 사별하고 나도 일찍이 아내와 사별하고 너도 아들 딸 셋을 두고 나도 아들 딸 셋을 두었다

세기의 백발을 휘날리어 조국통일의 찬란한 태양을 노래하며 달리는 길은 같았다

너는 불의에 혈압이 터져 불편한 몸 나는 한달에 한번은 꼭 찾아 뵙겠다고 약속 미처 가지 못해 약속을 어기면 전화로 '수룡이는 영태를 버렸구나'히

'수룡이는 영태를 버렸구나'하던 말 호통치는 그 소리가 내 귓전에 선하다

지금은 위중하여 곡기를 먹지 못하고 말문도 닫고 있다 태백산 빨치산 참된 동지여 내나라 세우려고 너의 신념이고 너의 양심이고 너의 의지인 너의 희망은 사라지는가! 태백산 빨치산은 눈을 감는가!

조선은 죽지 않았다 조선의 심장은 살았다 불을 지르자 원수의 머리에 불을 지르자 찬란한 세상을 만들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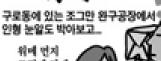
●1월 26일 선생의 영전이 모셔있는 인천의료원을 찾아 명복을 빌었다. (위 글은 김수룡 선생님께서 고 황영태 선생님을 추모하며 쓴 시입니다.)



대학 다닐 때 공활을 해본적이 있습니다. 아.. 활동가 수준은 아니고 심신수앙(?) 수준으로.. 선배들이 일어 넣어서 (위장취업으로 2주 가장..)



고등학교 졸업에고... 처음이랑예요





노조를 준비하는 모임에서 학습도 해보고 (학생이라고 밝히고)

독점자본이.... 아는 것도 많네. 민주주의와 동일은... 노동자가 단절해서...

아마 이렇은 대학생이라서

매운 사람들이 도와 중에 힘이 나고만 오쁜 함씩정 되짓다

뒤풀이 땐 술도 마시고 이야기도 많이 들었죠.

잘은 몰라도 우리세상.. 어디 총학생회장이라도 된 것이야! 이로모음 함께 하는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갈길 가고. 함께 하자 됐었습니다.



목독한 사람은 목독함으로, 가진 것 없으면 짱으로... 자기 그릇 되는대로 그렇게 '사람사는 세상' 가자 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했고... 지금도 잘난 인간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 길을 가라하지 않았습니다 한걸음 씩 딛고 왔을 뿐. 그 약속대로 변함없는. 이름없는 볏들에게 인사 드립니다.



●이 그림은 인터넷 방송국 '민중의 소리' 기자로 일하는 김도균 회원님께서 추천해주셨습니다.

03년 1월

- 01 새해 첫날 양심수후원회 야간산행 모임. 도봉산 등 반. 희망 새해의 해돋이를 지켜보며 자주 · 통일과 국가보안법, 양심수 없는 세상 기원, 신현익, 김창 희, 이창희 함께 함.
- 🗥 위암수술을 받고 집에서 요양 중이신 유기진선생님 과 박용길장로님, 조만조 전 지도위원께 새해인사 다녀오다.
- ▲ 경찰은 새해아침 일찍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 2개 중대 병력을 투입해 '효순이 미선이 추모 농성장' 을 강제철거하고 농성 중이던 민주노동당 최규엽 자통위원장 등 9명을 강제 연행하다.
- **02** 민가협 454회 목요집회
- 渐 범민련 김세창조직위원장 양심수석방 정치수배해 제 등 새대통령 취임사면 촉구 제단체연대활동 민 가협에 제의
- 🚔 미군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 범대위는 광화문 열린 05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시사모임이 주관하는 한상권 시민공원에서 효순이 미선이 추모농성장 강제 철거 규타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강제철거를 강력히 항의 규탄하고 이후 1인 촛불시위를 열린공원에서 갖기로하다.
- ▲ 조지부시 미 대통령은 북핵문제 군사적 대결이 아 니라 외교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 부산교도소에 갇혀있는 박경순씨 면회와 2002 부 라고 처음으로 말하다. 한편 뉴욕타임즈는 사설을 통해 '미국은 북핵문제에 대해 일방적으로 행동해 선 안된다' 고 주장.
- ▲ 이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새해 공동사설에 서 '우리민족의 조국통일운동에서 높이들 푯대는 시기 조선반도에서의 대결 구도는 북과남의 조선민 족 대 미국' 이라고 주장.
- **03** 미군장갑차 여중생 범대위 대표들 열린시민공원 두 **06** 부산교도소 박경순씨 면회가다. 전국연합 오종렬의 여중생 추모농성장 강제철거와 관련 경찰청 방문 강력 항의하다.
- 🏟 인천에 살고계신 황영태 선생님께서 지난해 12. 28 일 뇌졸중으로 다시 자리에 누워 계시다는 소식을 뒤늦게(2일) 전해듣고 오늘 문병을 다녀왔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구흥서선생님과 선생님댁을 방문했 📫 부산 남포동에서 2002년 부산대 총학생회장 윤용

- 을 때 선생님께서 누워 계셨으며 왼손만 움직일 뿐 전신이 마비상태였고 말씀도 못하시고 다만 사람을 알아보실 정도였습니다. 왼손으로 글자를 방바닥에 쓰는 것으로 의사소통을 했는데 선생님께서는 죽음 을 기다리신다며 체념상태이셨습니다. 조국통일에 대한 열망, 양심수에 대한 관심을 글자를 그리면서 표현하셨습니다. 음식은 미음 등을 떠 넣어드려야 하는데 잡수시질 않으셨지만 따님이 간곡히 말씀드 려 몇 모금 잡수신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이(구홍서, 권오헌) 찾아 뵌 것을 매우 반갑 고 기뻐하셨습니다. 선생님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 04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여중생 범대위 주최로 열 린시민공원 두여중생 추모농성장 강제철거 및 미선 이 효순이 추모와 부시사과 한 · 미 SOFA개정촉구 촛불시위 열리다.
- 교수의 현대역사강좌 '친일파 청산을 위한 움직임 과 좌절' 강의가 있었음. 새해 들어 처음인 이날은 통일광장선생님들이 많이 오시어 대성황을 이루었 으며 강좌가 있기 전 '반민특위 그 승자와 패자' 의 비디오 감상도 있었음.
- 산대학교 총학생회장 윤용조학생(심근염등을 앓으 면서 수배생활하고 있음)을 만나보기 위해 부산에 내려가다. 윤용조학생 증세와 관련 먼저 내려와 있 던 전국연합 오종렬의장과 강위원 범사회인대책위 집행국장 함께 만나 일정 등 논의하다.
- 6.15남북공동선언이고 민족공조'라고 했으며 '현 🚔 명동성당에서 청년학생들의 반미‧반전평화‧북 미불가침체결 촉구 · 여중생 살인한 미군철수를 위 한 청년학생 농성단 노상농성에 들어가다.
 - 장과 권오헌 양심수후원회회장, 부산연합 허운영씨 함께 하다. 특별면회실에서 만난 박경순씨는 중증 간경화의 투병을 하면서도 강인한 투병의지로 건강 관리를 하고 있었음. 밖에서 양심수후원회 등 여러 분의 후원과 성원으로 큰 힘을 받고 있다고 했음.

()3년 1월

조학생과 아버님을 만나 뵘. 심근염으로 진단 받은 윤용조학생은 공안당국에서 3개월 간의 치료기간 동안 신병을 자유롭게 하겠다고 한 상태였음, 무엇 보다 건강에 유의하여 반드시 치료 가능하다는 신 념을 갖고 노력하라고 격려하고 서울에 올라오 다.(강위원, 권오헌)

- ★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반미·반전평화·북미불가 침 체결촉구 · 여중생 살인 미군철수 촉구 청년학생 농성단 기자회견을 열다.
- 07 남민전, 범민련사건 등으로 20여년 옥고를 치루셨 고 민족민주운동의 원로이신 김병권선생님 82세 생 회고하는 오찬모임이 종로5가 남촌식당에서 있었 때까지 오래오래 사십시오.
- ☎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민주사회 정책연구원과 학술단체협의회 공동주최로 정책 토론회 '북핵, 그 회로 박선원(연세대 통일연구원 전임연구원), 강정 구(동국대 사회학 교수), 김연철(고려대 아세아문 제연구소 연구교수),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김해효(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유영제(자통협 사무 처장)씨 등이 발제와 토론이 있었음.
- ▲ 기독회관 2층 뷔페식당에서 6.15공동선언 실천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신년하례식이 있었 음. 한상렬 상임공동대표의 인사말과 이종린 범남 본의장, 백기완선생 등 덕담이 있었음.
-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정부의 국정 10대 의제를 심국가 건설 ·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 과학기 술 중심사회 구축 ·참여복지와 삶의질 향상 ·국 민통합과 양성 평등사회 구현 · 교육개혁과 지식문 화강국 구현 ·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 부패 없는 사회봉사하는 행정 · 청치개혁실현 등
- 08 향린교회에서 조순덕 민가협상임대표와 한상렬 통 🐞 탑골공원 앞에서 민가협 455회 목요집회 열림. 여 일연대상임공동대표, 권오헌 양심수후원회대표 등 이 공동소집한 양심수 석방, 정치수배 해제, 국가보

아법 철폐, 범민련·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보안관 찰법 폐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및 집행책 임자 연석회의 열리다. 이창희 양심수후원회간사의 사회로 권오헌 대표의 인사말, 제안설명(이창희) 등 이 있었고 안건심의에서는 권오헌의 사회로 양심수 석방 대책위원회구성보다는 단체연명으로 대통령 직 인수위원회에 당선자 면담 요청 등을 하기로 하 고 준비과정에서 민가협을 주무간사 단체로 협조단 체로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통일연대 민주노총 등 5 ~6개 단체로 하고 오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함.

- 신을 맞아 많은 동지, 후배들과 함께 지난 시간을 🛭 🟟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집회 540차 (1주년)집회를 열다.
- 음. 선생님 더욱 건강하시고 통일조국이 이루어질 🦾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집행부 주례모임 갖다. 후원 회 소식 발간 대통령취임 양심수석방, 정치수배해 제, 사면 · 복권등 노력할 일, 기획모임의 평가서에 대한 논의 김미성수습간사 합류문제 등 협의.
- 평화적 해법은'이 열렸음. 성공회대 김귀옥교수 사 🙀 10기 한총련 유경회 의장권한대행이 오후 늦게 (7:20) 국민대에서 나오다 보안수사대원에게 강제 연행 당하여 마포에서 구류중임을 통보 받다. 밤9 시 마포서에 가다. 한총련 학생 200여명 항의집회 열다. 윤경회 권한대행 면회와 관련 경찰과 긴 시간 실랑이하다. 새벽 0시 30분 한상렬, 노수희, 권오헌 대표와 홍익대 학생 2명 등 5명이 면회하다. 윤경회 권한대행 마음도 몸도 건강하다며 흔들림 없이 한 총련 활동을 계속해 달라고 했음. 면회 마치고 나와 학생들에게 보고 및 격려 말(권오헌) 하고 해산하 다.
- 확정하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동북아 경제중 09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불평등한 한 · 미 소파개 정 범국민요구안 발표기자회견을 여중생범대위 주 최로 열리다. 기자회견에서는 SOFA개정 추진단 구 성과 활동계획 불평등한 SOFA개정 범국민 요구안, 한 · 미 당국의 개선합의사항에 대한 입장 발표와 기자회견문 등이 낭독되었음.
 - 는 말- 임기란 전 상임의장, 한총련 윤경회 의장권 한대행 연행규탄 연설- 신미연 홍익대 미대 학생회

장, 민혁당 관련 양심수 임태열님 석방을 바라는 탄 🙀 이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정부성명'을 통 원서낭독- 임태열님 부인 박윤희, 새해 양심수석방 및 정치수배 해제를 바라는 연설-권오헌 민가협양 심수후워회 회장 등

- ▲ 경찰청 앞에서 한총련 학생들 윤경회 권한대행 연 행에 항의하는 집회. 그러나 경찰은 무차별 무자비 하게 폭력으로 진압 닭장차에 강제로 태우다. 이때 민가협 어머니들과 함께 현장에 도착 경찰과 몸싸 은 학생들 경기대로 돌아가다. 민가협 어머니들 옥 인동 보안수사대에 가서 윤경회 학생 면회 권오헌, 경기대와 서대문 경찰서 오가며 연행학생 원상복귀 를 항변. 저녁 8시경 학생들 모두 풀려나고 결의시 간을 갖고 해산.
- 渐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북 핵문제타결을 위해 북한에 공식적인 불가침 보장을 해줄 수도 있다' 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
- ☎ 9일 새벽 6시 30분께 경남창원시 위곡동 두산 중공 업 단조공장 냉각탑 옆에서 이 회사 노조원 배달호 씨가 분신자살 했음. 배씨의 유서에는 가압류 등으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 ▲ 한총련(5기) 투쟁국장 김준배씨를 폭행하여 숨지게 한 혐의로 의문사 진상규명회가 고발한 경찰관에 대한 광주지검이 지난해 12월 31일 '혐의 없다' 며 불기소 결정할 의문사진상규명위에 9일 통보해왔 다고 밝힘. 의문사진상규명위는 김준배씨 사망원인 이 아파트에서 추락한 뒤 폭행도 당해 사망한 것으 로 조사되었다며 '재정신청' 을 하겠다고 밝힘.
- 이 '여중생 압사사건 수사 및 재판관련 기록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공개청 12 마석 모란공원 열사묘역박종철열사 묘지에서 민주 구서를 검찰청에 내다.
- ▲ 프레스센터에서 민주언론운동연합과 민교협공동 으로 '우리사회의 반미담론과 언론' 주제로 토론회 열다. 고유환, 최민희씨 발제, 손석춘, 강정구, 최내 현씨 등 토론

- 해 '미국이 한사코 우리를 압살하려하고 있고 국제 원자력 기구가 미국의 대조선적대정책의 도구로 도 용되고 있다'며 '핵무기전파 방지(핵확산금지)조 약(NPT)'에서 탈퇴함에 따라 조약 제3조에 따르는 워자력기구와의 담보협정(핵인전조처협정)의 구속 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을 선포한다'고 밝혔다고 관영 중앙방송이 보도한 것으로 알려짐.
- 움하다 결국 닭장차 4대에 학생을 강제로 연행, 남 🙀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시민사회단체들은 '노동 열사 고 배달호동지 분신사망 대책위원회'를 구성 하고 전국조직을 동원해 두산중공업의 강압적 노무 관리 행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방침을 세움. 특히 노조원의 봉급과 재산에 대한 가압류조 처를 즉각 해제하고 박용성 두산그룹회장의 사퇴도 요구했음.
 - 11 탑골공원 앞에서 양심수후원회와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김대원대책위원회 등 국가보안법폐지 양 심수 석방 토요캠페인 벌임. 마치고 여중생 범대위 주최 촛불시위에 함께함. 오영순, 이진, 이승미, 김 미성, 이창희, 권영구, 권오헌 외 참가.
- 로 생활이 어렵다, 해고자는 복직돼야 한다는 등이 🙀 옴시롱감시롱이 2002년을 보내고 2003년을 이끌어 갈 으뜸일꾼을 뽑는 등 새해 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를 청계산 '오작교'에서 열었습니다. 이날 으 뜸일꾼으로 김혜순씨가 뽑혔고 으뜸일꾼 제청으로 버금일꾼으로 양인철, 총무에 노혁, 기행기획위원 에 김길자, 이득형, 모성룡을 선출했습니다. 어린이 들까지 30여명이 모여 모처럼 맛있는 음식을 나누 며 뜻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다음날 청계산 등반도 했습니다.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
- 10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실에서 여중생 범대위 대표들 🧥 인천 나사렛 한방병원에 계시는 정순덕 선생님께 매오로시에서 문병을 다녀왔습니다.
 - 열사 박종철 기념사업회 주최로 민주열사 박종철 16주기 추모제 열렸음. 참가자 분향 제례에 이어 조 찬배, 권오헌의 추모사, 진관스님의 추모시 낭송, 각계 대표의 인사말과 박종철열사 아버님 박정기 전 유가협 회장의 유족인사말씀이 있었고 추모의

03년 1월

노래 등으로 마침.

- ▲ 노동열사고 배달호동지 분신사망 대책위원회(위원 중공업 민주광장에서 노동자 1500여명이 모인가운 데 추모행사와 노동탄압 및 족벌경영 규탄집회를 열다.
- 13 2003년 자주와 평화를 위한 여중생범대위와 한국사 기자 클럽에서 열다.
- ☎ 후원회소식 135호 원고 종합 및 교정보다.
- 14 경북궁 옆 한식당에서 20차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 민연대 상임공동대표 및 집행부 연석회의 열다. 권 상심의위원장 면담내용 등 협의하다. 이어 2시에는 민주화운동 관련 명예회복 및 심의위원회로 김상근 위원장 면담을 하다. 대표단은 이 자리에서 명예회 복법 개정문제 심의 내용 정보공개문제, 국가보안 법 관련사건 심의지연 문제 등에 대해 적극적인 자 찬배, 권오헌 상임공동대표와 한충목 집행위원장, 박석률 국가보안법특위 위원장, 박희영 사무국장이 함께 했음.
- ☎ 명동성당에서 지난해 9월부터 병원노련탄압에 맞 서 농성을 하고 있는 차수런 보건의료노조위원장과 반미·반전평화와 북미불가침협정촉구를 위해 단 식농성하고 있는 윤기진 범청학련남측본부의장 등 격려 방문하다.
- ☎ 명동 박정희기념관 반대국민연대 사무실에서 국민 연대 대표자회의를 열다. 대통령직 인수위 박정희 기념관 건축저지를 촉구하기로 하고 기념관 건축을 로함.
- ▲ 안국동 느티나무까페에서 이른바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감옥에서 의문의 죽음 을 당한 고 권두영 박사 10주기를 맞아 가족들과 친 노중선선생 경과보고와 오신분 소개, 천영세선생의

- 약력보고, 김낙중, 김금수선생의 추모말씀이 있었 음.
- 장 유덕상 민주노총위원장 직무대행)는 창원 두산 🕍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경찰의 방해책동을 물리 치고 SOFA개정 국민행동, 용산운동본부 미군기지 반환연대, 매향리범대위 공동주최로 제40회 미대사 관앞 반미연합집회 열다. - 이날 경찰은 닭장차 수 십대로 열린공원과 미대사관을 에워싸고 있었음.
- 회단체 공동으로 신년기자회견을 프페스센터 외신 🥻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민주노총, 민주노동 당등 40여 사회단체가 함께 하는 대한상의 박용성 회장 퇴진촉구 기자회견과 항의방문 집회를 잇달아 열다 故 배달호열사의 분신과 관련 두산중공업의 노조원에 대한 탄압저지와 족벌경영을 규탄함.
- 오헌대표의 사회로 명예회복 법개정 추진의건, 보 🚔 국가인권위원회 곽노현(방송대 법학과교수) 비상 임위원이 '인권위가 진흙탕싸움에 골몰해 제구실 을 다하지 못한다'며 '위원장의 비민주적 운영철 학, 사무처 중심의 구조 전략과 기획마인드가 결여 된 업무수행방식에 대한 항의로 국가인권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발표.
- 세를 보이라고 요청하다. 오늘 면담에는 오종렬, 조 15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한총련과 한총련합법화를 위 한 범사회인대책위원회 공동으로 10기 한총련 윤경 회 의장권한대행 연행규탄과 한총련 이적규정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다 여는말 이종린범남본의장, 규탄발언 오종렬, 기자회견 낭독 권오헌, 김준배열 사 폭행경관 불기소처분 검찰규탄 성명서(한총련학 생) 등으로 이어졌음. 마치고 한총련학생들은 검찰 청에 항의 서한 전달함.
 - 🚔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고이즈미 일본총리의 야 스쿠니 신사 참배규탄 등 수요집회 열림. 마치고 일 본 NHK TV와 도쿄 TV와 고이즈미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관련 규탄하는 인터뷰를 하다 (권오헌)
- 허가했던 고건 전 서울시장의 총리지명을 반대하기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통일연대 평화위 원회 주관으로 '한반도 위기 정세진단과 해법' 이라 는 주제로 세미나 열리다. 연합뉴스 강진국 기자, 통일연대 민경우, 박석률씨 등 발제로 참가자 모두 의 토론으로 이어졌음.
- 지들이 모여 추모모임을 가졌음. 정밝이씨 사회로 🦾 낙성대 입구 '시골집'에서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새 해인사 모임과 14차년도 9차 운영위원회 열렸음.

사 노중선, 진관스님, 그리고 민가협에서 임기란, 장이 오셨고 운영위원으로는 김지영, 이기욱, 이정 규, 김호현, 탁무권, 권오헌, 그리고 전 운영위원 임 종인 변호사도 함께 했음. 이창희, 송창학, 김미성 간사와 이승미, 장재영 기획운영위에서는 김미성 새간사 인사와 운영위원회의 활성화 양심수석방, 정치수배해제 등 새정권의 양심수 사면에 적극적으 로 추동하기로 했음.

- ☎ 김대중대통령 일본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관 련 서울에 온 가와구찌요리코의 접견 일정을 취소 하다.
- ▲ 참여연대, 자통협, 민주노총 등 14개 시민사회단체 를 대표하여 서경원, 장유식 대표 등 대통령직 인수 위원회국민제안센터에 차세대 전투기(F-15K) 도입 의혹의 진상규명과 재검토를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 하다.
- 16 안국동 느티나무까페에서 민가협 민변 등 361개 시 \Rightarrow 숭실대 한경직기념관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 민사회종교단체 공동으로 '양심수 석방, 정치수배 해제 및 대사면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열다. 민가협 채은아 간사사회로 조순덕 민가협상 면촉구 발언- 권오헌 양심수후원회대표, 유덕상 민 주노총위원장 직무대행, 기자회견문 낭독에 최병모 민변회장 등의 순서로 이어졌음. 기자회견에서는 박경순씨의 아드님 박정우군이 아버지 석방을 호소 🕍 소식지 발송 (국내 1,155통, 국제 18통) 했고 85세의 이석기씨 어머님이 아드님의 석방을 촉구했음.
- ▲ 민가협 목요집회 456회 탑골공원에서 열림. 여는 말- 조순덕 상임의장님, 아빠를 살려주세요 편지글 낭독 - 박정우(13세) 박경순님 아드님, 새대통령님 들을 돌려주세요 - 호소문 김복순(85세) 이석기님 어머님, 양심수 석방 촉구발언문 -임기란 전 상임의 장, 바위처럼 노래공연- 성균관대 사회과학 노래패 아우성등.

- 지도위원으로 박용길, 김영옥, 김규철선생님과 감 🙀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전국농민총연맹 9기 2차년 도 정기 대의원 대회 열리다.
- 김정숙 전상임의장과 조순덕 상임의장, 이영 부회 🏟 동대문 두산타워 앞에서 민주노총 등 노동열사 故 배달호 동지 추모 및 살인재벌 두산과 노조탄압 규 탄대회를 열고, 동대문운동장에서 종묘공원까지 행 진.
 - 📤 소식지 발송작업을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진행함. 김숙희, 이용준, 박지윤, 이진, 왕준영, 이창희, 김 미성 등이 함께 함.
 - 17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반전·평화, 북·미 불가침 촉구, 여중생살인 미군철수를 위한 범청학련 남측 본부 결의대회 가 80여명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열 림. - 집회를 마친 뒤 미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 하려했으나 경찰 제지로 노상에서 항의서한 낭독하 고 해산함. 항의서한은 북에 대한 핵전쟁 책동 중 지, 북 · 미 대화에 나설 것, 남북대화 간섭말 것, 소 파개정, 살인미군 처벌, 핵위협 미군철수 등 요구하 는 내용.
 - 청년 · 학생 통일운동연대 주최로 반미청년문화제 열림, 우리나라, 김원중, 그림공장, 조국과청춘 등 출연.
- 임의장의 인사말, 양심수와 정치수배자 현황과 사 🛭 🟟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국가정보원은 대통령에 취 임해 확실한 지휘권을 확보한 뒤 조기 개편과 인사 혁신을 단행하겠다고 인수위 정무분과 정책간담회 에서 말하다.

 - **18** 대전동구 청소년 수련원에서 18~19일 사이 2003년 범민련 통일일꾼 수련회 열림. 수련회에서는 2002 년 통일운동 평가와 2003년 정세 전망 및 통일운동 진영의 과제와 각계각층 통일일꾼들이 단결과 단합 결의의 마당이 되었음.
- 께 편지글 낭독 하혁춘(7세) 하영옥님 따님, 내아 🗯 기독교회관 2층 뷔페식당에서 늦봄 문익환목사님 서거 9주기 추모식과 묘소참배가 있었음. 추모식은 유워규목사님 사회로 이재정 이사장 인사말, 이해 동목사님 기도, 박형규, 권오헌의 추모사와 함께 추 모의 노래 그리고 문성근 가족대표의 인사, 박형규

03년 1월

목사의 축도 등으로 마치고 참가단체별 분향헌화가 있었음.

- ☎ 양심수후원회와 국보철국민연대, 김워대책위 등이 함께하는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석방 토요캠페인 벌임. 캠페인 마치고 광화문 교보문고 촛불시위에 후원회 깃발들도 합류 -송창학, 주경임, 송인영, 김 미성, 한재경, 이창희, 권오헌 함께 함.
- 19 양심수후원회 1월 산행의 날, 평창동 북악호텔 앞에 서 모두 12명이 등반에 함께 함. 일선사 - 대성문, 보국문, 대동문-진달래능선-아카데미 하우스 쪽으 로 내려오다. 산 높이 400M이상부터 빙판이 있어 길과 성터길을 가다. 대성문 북쪽의 빈 터에서 준비 해온 점심을 먹고 기념촬영도 하다. 아카데미 하우 스 쪽으로 내려 오는 곳에서 소개시간과 시사모임 서 뒷풀이를 하다. 유기진, 서순정, 신현익, 이득형, 양계숙, 이승미, 변의숙, 이봉주, 송창학, 한상권, 이창희, 권오헌 함께하다.
- 20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민주화운동정신계승 🧥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전봉진부장판사)는 1980 국민연대 주최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 상에 관한 법률(명예회복법)개정과 보상심의위원 회의 민주적우영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들어가다 🧀 소식지 편집모임이 오후 7시 30분에 인사동 만복정 첫날(20일) 1인 시위로 계승연대 권오헌 상임공동 대표가 했고 박희영사무국장 등이 선전물을 나누어 주었음.
- 21 세종로 미대사관 앞에서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 튼 방한규탁' 700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열고 전쟁광 존볼튼의 방한과 미국의 전쟁책동을 규탄.
-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민중의 소리와 한국인 워으로 한국의 피플파워와 촛불시위에 관한 토론회 '촛불시위 어떻게 볼 것인가? 가 열리다. 민중의소 리 김영욱 사회로 홍근수 목사의 발제와 김제남, 채 근식, 이철기, 이재호, 조대기, 이용대씨 등의 토론 이 있었음. 토론에서는 촛불시위에 관한 역사적 의

- 미를 강조하고 형식과 내용에 관한 의견들이 있었 음. 촛불시위는 계속되어야 하고 여중생살인사건에 대한 살인미군처벌, 부시사과, 소파개정요구는 물 론 반전평화시위로 승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의견 모음. 마지막으로 방청석에서 권오헌양심수후원회 대표의 평가발언이 있었음.
- ▲ 서울지법형사합의 21부(재판장 박용규부장판사) 심리로 한청 정상봉씨 등 3명에 대한 증인심문 공 판이 있었음. 증인으로 성남시의원 김미화씨가 나 와 한청이 합법적이고 정당한 활동을 하는 단체라 고 증언 -마치고 정리집화 권오헌 격려말 하다.
- 아이젠을 한 쪽씩 나누어 착용하고 조심조심. 얼음 🕍 남과 북 적십자회담 대표는 금강산에서 제3차 실무 접촉회담을 열고 면회소 규모와 이산가족 상봉, 전 쟁시기 행방불명자 소식 등에 관해 본격협의에 들 어가다.
- 시간(북핵문제등)을 갖고 4.19묘소 부근 두부집에 🔺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 김령성내각참사를 단장으로 하는 북측대표단이 인천공항에 도착, 저녁에는 쉐 라톤워커힐호텔 컨벤션센터에서 김석수 총리가 주 최한 환영만찬에 참석.
 - 년 '김대중 내란음사건'에 연루된 관련자 고 문익 환 목사 등 18명에 대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다.
 - 에서 열림. 소식지 1월호를 평가하고, 2월호 준비를 이야기하였고, 하재광 회원이 새 편집위원으로 가 입함. 하재광, 오영순, 김미성, 이승미, 이창희 등이 함께 함.
- 천 주최로'대북적대정책, 이라크 침공반대, 존볼 22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여중생 범대위 주최로'여 중생투쟁 무력화 노리는 미국방부의 비밀공작음모 규탄 기자회견'을 열다. 문정현신부의 규탄발언, 홍근수목사의 기자회견문 낭독 등이 있었음.
- 터넷 기자협회 주최, 여중생 범대위 시민방송 TV후 🛭 🚔 광주교도소 교도관의 양심수 최진수씨 폭행사건과 관련 민가협회원들과 함께 과천정부청사로 법무부 항의 방문하다. 교정국장 등이 없다며 보안과 계장 이 나와 광주교도소 소장과 폭행교도관 처벌을 강 력 촉구하다. 조순덕 상임의장, 임기란, 서경순 전 상임의장, 이영님, 김덕영모친, 하영옥모친, 심상득

모친, 권오헌 함께하다.

- ☆ 남북은 금강산 해금강호텔에서 제3차 적십자대표 실무접촉을 마치고 6차 이산가족상봉 등 5개항의 합의서를 발표하다. 합의문에서는 금강산 이산가족 로 했으며 다음달 20~25일사이 금강산에서 6차 이 산가족상봉을 하기로 함
-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핵심관계자는 '노무현당선자 가 취임 뒤 모든 사면문제에 대해서 국민여론을 다 각도로 수렴해 결론을 내리라는 지시를 했다'며 도되다.
- 渐 회원관리모임이 오후 7시 30분 낙성대 만남의 집에 서 모임을 갖다. 변의숙, 노혁, 김숙희, 송창학, 이 창희, 김미성, 안나미 등이 참가하여 회원관리에 관 해 논의함.
- 23 대통령직 인수위 정문 앞에서 여중생범대위 주최로 SOFA 전면개정 여중생 살인사건 진상규명 및 재수 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다.
- ☆ 광주교도소 교도관 최진수씨 폭행과 관련 가족들 3 일째 노상 농성하다. 양심수후원회 이정태운영위원 25 양심수후원회와 국보철국민연대 김대원대책위 덕 광주에 내려가 합류하다.
- ▲ 민가협 457회 목요집회 탑골공원에서 열림. 여는 말-조순덕 상임의장, 양심수 조건없는 사면석방 촉 구, 최진수씨 폭행교도관·교도소장 처벌, 폭행사 건 해결 촉구 연설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 장, 양심수 사면, 석방을 바라며 새대통령님께 드립 니다 편지글 낭독 - 한평숙(임태열 어머님). 6년째 석아! 낭독 - 방영숙(최은석어머님) 등.
- ☎ 민중의소리 방송기자와 양심수석방, 정치수배해제 사면 · 복권 등 내용 인터뷰(권오헌)
- 24 광주교도소 교도관 양심수 최진수씨 폭행사건과 관 🛭 奋 전쟁시기 빨치산 활동 등을 하다 체포되어 20년 이 련 민가협회원들과 광주교도소에 항의 방문하다. 민가협회원들 광주교도소 보안과장과 면담, 폭행교 도관 처벌과 폭행사실을 은폐로 조작하려는 교도소 장 퇴진 요구.

- ☎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2003년 전남대 총학생회 장 윤영일 학생 면회(하영옥씨 모친, 임태열씨 모 친, 권오헌) 전남대생 9기한총련대의원 김형주학생 면회(기세문,양영엽, 이정태)
- 면회소를 내년 4월 완공을 목표로 4월에 착공하기 🙀 9차 남북장관급회담이 북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적극협력하기로 하고 경제 협력 추진위원회 4차 회 의를 2.11~14일까지 서울에서 열기로 했으며 다음 장관급회담을 4월에 평양에서 여는데 합의하는 등 일정을 모두 마치고 김령성북측단장 등 대표단이 오늘 서울을 떠나다
- '특히 노당선자는 한총련의 합법화를 들었다' 고 보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1 층 로비에서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원들이 민주 화운동관련 보상심의자료 공개와 보상법의 개정, 김상근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농성 에 들어가다.
 - ▲ 김대중대통령은 북핵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임동 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 특보를 대통령특사자격으 로 27~29일까지 평양에 파견하기로 했다고 박선 숙 청와대대변인이 발표. 임특사 파견에는 인수위 의 이종석위원도 동행한다고 하다.
 - 성여대 양심수후원회 등이 함께하는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석방' 토요캠페인을 탑골공원 앞에서 벌이다. 선전물과 유인물 배포, 서명운동도 함께하 고특히 모의감옥을 설치하여 수감생활을 보여주는 퍼포먼스도 있었음. 송창학, 이봉주, 김창희, 이창 희, 한수정, 김숙희, 김미성, 김수룡, 변숙현, 이용 준, 권오헌 함께 마치고 촛불행진에 합류하다.
- 수배중인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사랑하는 아들 은 🙀 여의도에서 한총련합법화문제 등 대통령당선자 면 담요청을 위한 관계자 모임을 가졌음. 송영길 민주 당의원과 이상갑변호사, 강위원집행국장, 권오헌 범사회인대책위 대표, 한총련학생들 함께 함.
 - 상 옥고를 치르시고 1974년에 출소하여 광주 천혜 양로원에서 생활해오시던 박석칠선생님(89세)이 통일세상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박 선생님은 27일 광주 망월동 영락공워묘지에 모셨습

13년 1월

니다.

- 渐 인천 나사렛 한방병원의 정순덕 선생님께 매오로시 에서 문병을 다녀왔습니다.
- 26 항일운동과 민족민주 운동을 하시면서 옥고를 치르 시는 등 한평생을 조국통일운동에 헌신해오셨으며 않으셨던 황영태선생님께서 뇌졸중 후유증을 앓으 시다 25일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27일, 발인제를 갖 고 고향 땅 강화군 화전면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삼 🙀 시사모임이 오후 7시 30분 낙성대 '사카'에서 열 가 명복을 빕니다. 김호현, 권오헌 문상 다녀왔습니 다.
- ▲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다음 달 대통령취임식에 하기로 했다고 이상수 민주당사무총장이 밝힘.
- ▲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김상근위원장 퇴진을 요구하 며 농성을 벌이던 유가협회원들 김상근위원장이 사 퇴의사을 표함에 따라 농성을 끝내고 해산.
- 27 통일뉴스 청탁원고 '새대통령 취임을 목마르게 기 다리는 사람이 있다'송고.
- ★ 남・북군당국은 판문점 통일각에서 수석대표 접촉 을 갖고 남북철도 · 도로 연결의 선결조건인 동 · 서 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 을 위한 잠정합의서에 서명했다고 국방부가 밝힘.
- ▲ 임동원 대통령대북특사 일행이 서해직항로를 통해 도.
- 28 양심수석방에 남다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황금수선생님께서 푼푼이 모으신 동전 330,000원 과 100,000원을 더하여 440,000원을 후원회비로 보 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주최로 28차 평화군축실현 국방부 앞 집회. '우발계 111 도입 재검토 촉구 등을 주제로 집회.
- 🏟 방북 중인 임동원 대통령특사는 만수대 의사당에서 🐞 양심수 42명에 영치금 2만원 씩 보냄. 김영남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면 🦝 '말' 4권과 '민족21' 5권을 양심수들에게 보냄. 담하고 김용수 노동당대남담당비서를 만나 철도 ·

- 도로 연결 등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회담을 했다고 보도.
- 29 민주당 김근태, 김희선, 한나라당 김홍신, 개혁정당 김원웅의원 등 여·야의원 17명은 '미국 부시행정 부의 대이라크 전쟁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
- 특히 장기구금 양심수에 큰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 🟟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홈페이지 관리모임이 오후 7 시 30분 동대문 '구름속에 산책' 에서 열림. 홈페이 지 개선책 등에 대해 논의함.
 - 림. 2월 역사강좌에 대해 준비하고, 철학책 '호모에 티쿠스'를 공부하기로 함. 정윤성, 이진, 한수정, 이 창희, 송창학 등이 함께 함.
- 맞춰 양심수에 대한 특사를 단행하는 방안을 검토 30 연세대학생회관에서 한총련 수배학생들이 모여 '2003년 설맞이 한총련 합법화 수배자 합동차례' 를 지내다. 김영삼정권 시대 수배자 전 5기 한총련의 장권한대행 유영업 목포대 총학생회장과 97년 한총 련 간부 송용한(고려대서창캠퍼스)학생을 비롯하 여 연세대학교 수배학생 10여명이 함께 함. 학생들 은 함께 한 민가협 조순덕 상임의장, 방영숙(최원석 어머님)님, 노수희 전국연합공동의장, 권오헌 양심 수후원회대표 등에게 세배를 하고 새해인사말을 했 음. 한총련합법화문제에 대한 권오현대표의 격려말 과 조순덕, 방영숙 노수희의장 등의 새해 덕담이 있 었음.
- 평양에 도착. 김용순 비서와 오찬을 함께 했다고 보 31 양심수후원회 회원들 민족명절 설을 앞두고 혼자 계신 분들을 비롯한 몇몇 선생님을 찾아 뵙고 세배 를 미리 드렸습니다. 낙성대 만남의집 김영식선생 님, 봉천동의 박종린선생님과 건강이 좋지 않으신 안희숙, 김해섭선생님, 우리탕제원의 안학섭선생 님, 권낙기선생님, 어머님들을 찾아뵈었습니다. 이 종섭, 김호, 고광희, 송창학, 이창희 회원이 함께 하 였습니다.
- 획'폐기, 이준 국방장관 망언 규탄, F-15K와 KDX- 🙀 출소 장기수선생님들과 양심수 가족들에게 지원금 을 보냄.